월간 국립극장

August. 2023 | VOL.26

국립극장 온라인 정기간행물 webzine.ntok.go.kr

06-07
내일의 전통
SPOTLIGHT

10-49
무대, 탐미
STAGES

52-61
안목의 성장
INSIGHT

64-72
극장 속으로
INTO THEATE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2023.
9.1. FRI 19:30
국립극장|해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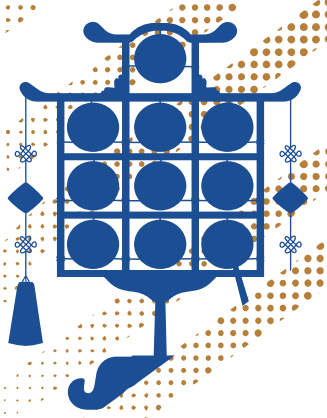
디스커버리

DISCOVERY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3-2024

지휘 여자경

Contents

August. 2023 VOL.26

내일의 전통 SPOTLIGHT

깊이보기 하나
국악관현악의 쟁점과 딜레마 ②
06 국악관현악의 진화와 과제

무대, 탐미 STAGES

미리보기 하나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열며
10 공연의 감동, 일상의 힐링

미리보기 둘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국립창극단 시즌 프리뷰
12 최고의 솔리스트 앙상블

미리보기 셋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국립무용단 시즌 프리뷰
14 가치에 깊이 더하는 한국춤

미리보기 넷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즌 프리뷰
16 시도를 거듭하겠다는 출사표

미리보기 다섯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기획공연 시즌 프리뷰
18 풍성하고 다채롭게

미리보기 여섯
2023-2024 레퍼토리시즌 공연 소개
20 60가지 기다림

미리보기 일곱
2023-2024 극장 활성화 사업
26 일상에 활기를 더하다

미리보기 이벤트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능력 고사
28 이거 알면 공연 인싸

미리보기 여덟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프로그램
30 23-24 레퍼토리시즌 일정표

미리보기 아홉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디스커버리>
34 첫 만남의 설렘

미리보기 열
국립무용단 <온춤>
38 전통춤, 새 페이지를 열다

다시보기 하나
국립극장 기획공연 <우리 읍내>
42 평범한 이야기, 큰 울림

다시보기 둘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재>
46 예술하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

안목의 성장 INSIGHT

새로운 시선
오스틴 기븐스 Austin Givens
52 백정

영감을 주는 곳
서울공예박물관
56 예술과 일상, 그 경계의 공간

예술가의 한 마디
안토닌 드보르자크
60 흑인 음악가의 위대한 스승

극장 속으로 INTO THEATER

예술배움
<청소년 창극아카데미> 오민아·송재영 강사 인터뷰
64 현재와 미래의 창극적 만남

박물관 돋보기
1973년 국립극장 준공기념 공연 <별의 전설>
68 한국적 무용극의 탄생

국립극장 소식
70 이달의 소식

국립극장 일정
72 8월 달력



내일의 전통



SPOTLIGHT

국악관현악의 진화와 과제

국악관현악단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 성장이 가시적이며 동시대 예술로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시기별 성장 과정과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국악계가 현대적으로 제도화하는 시기에 국악관현악 역시 양식과 연행의 두 축에서 '국악계 음악 만들기' 한복판에 있었다. 첫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한 1965년부터 지금까지 터닝포인트가 된 주요 담론과 상징적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1965년은 국악 제도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신국악, 작곡, 악기 개량, 무대 양식화 등 국악의 현대화 담론을 견인했다. 1985년은 국가 중심의 민족국가주의와 연동되어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상징했다. 대중문화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악의 대중화 담론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 연결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이 설립되는 등 확장의 시기였다. 1995년은 국악의 세계화와 생활화가 주류 담론으로 떠올랐다. 국악관현악의 역사는 국악 제도화의 역사를 그대로 담을 만큼 국악계 주류로 부상했다. 2015년은 국악관현악에 있어 특별한 해였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창단 50년을 맞았고, 1985년에 설립된 KBS 국악관현악단은 30주년을, 1995년에 시작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주년을 맞으며 국악관현악을 성찰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3년 여름, 국립국악원에서는 신진 연주자를 주축으로 한 국악관현악축제가 개최됐고, 세종문화회관은 올가을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라는 전국 규모의 국악관현악단 축제를 신설한다. 국악관현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 성장이 가시적인 동시대 예술 연행으로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국악관현악의 성장은 국악관현악을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해답 찾기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국악관현악의 진화를, 국악관현악의 세 가지 쟁점인 작품·연행·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쟁점인 '작품'은 국악관현악의 '양식'에 대한 탐색이다. 국악관현악은 전통을 잇기 위한 창작인가, 창작을 위한 전통인가, 국악관현악곡에서 명곡은 어떠한 미학을 추구하는가 같은 질문을 담고 있다. 국악 작곡과 신국악이 시작된 국악관현악 태동기에는 작곡가와 작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0년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곡가의 시도로 국악관현악이 만들어졌다. 작곡가는 전통음악의 선율과 장단에 새로운 형식과 편성을 입히거나 서구 음악의 조성 체계와 오케스트라 양식을 차용하거나, 조성과 양식을 파괴한 현대음악 기법을 얹는 등 다양하게 시도했다. 작품의 주체를 작곡가에서 연주자로 설정하며 국악관현악 양식을 실험하는 가장 도전적인 시도까지 이어졌다. 국악 작곡가뿐 아니라 양악 작곡가, 외국인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국악관현악 양식은 다양한 주체를 통해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됐다. 이들의 작품은 전통과 동시대, 정통과 혁신의 스펙트럼 위 어딘가에 위치했다. 지난 50여 년간 레퍼토리가 축적되면서 작품의 수준과 작곡 기법에 대한 질문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 '작품'에 대한 논쟁은 국악관현악 양식의 미학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두 번째 쟁점인 국악관현악의 '연행'은 지휘와 지휘자, 예술가의 연주 기량, 극장과 음향, 악기 개량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국악관현악 초기 국악 전문 지휘자의 부재는 국악관현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휘 전공이 따로 있지 않던 초창기, 지휘를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 국악계 남성 리더들은 지휘자의 지위를 획득했다. 초기 국악관현악단의 작곡 공모사업은 점차 차세대 지휘자 양성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됐는데, 작품 못지않게 지휘의 기술과 작품의 해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이렇게 육성 발굴된 신진 지휘자와 국내외에서 지휘를 전공한 전문 지휘자의 등장으로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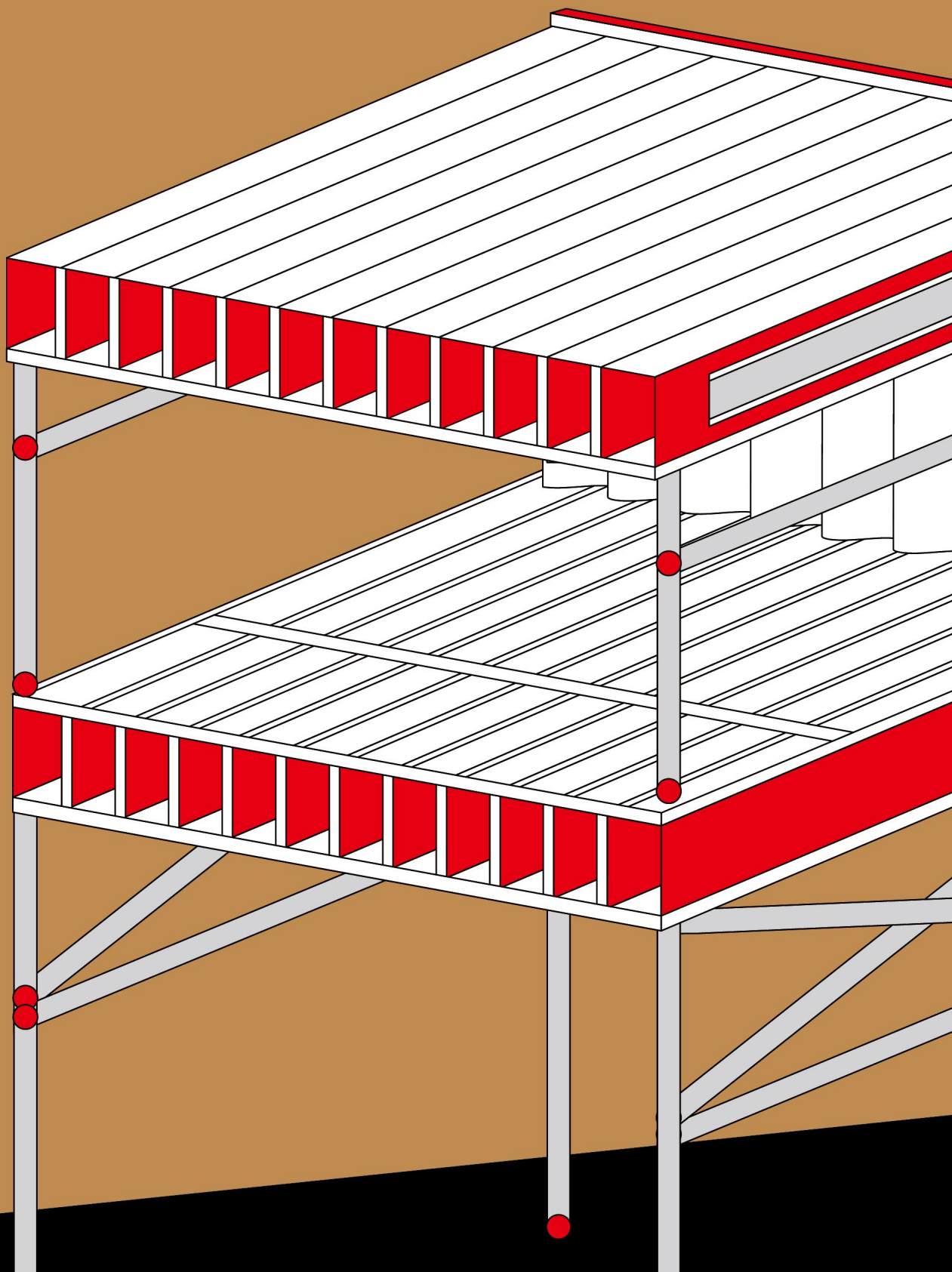
최근 국악관현악을 지휘한 로봇 지휘자 에버6의 실험(국립국악관현악단 <부재>, 2023년 6월 30일)은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성찰을 던진 흥미로운 작업이다. 국악관현악이 만들어낸 마케팅 이슈로도 유의미했지만, 무엇보다 지휘를 둘러싼 국악계의 논의를 끌어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가가 지닌 연주 기량은 작품의 난이도와 함께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개별 예술가들의 실력뿐 아니라 음화(앙상블)의 수준도 높아져, 이제 주요 국악관현악단의 음색과 음화는 악단별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국악관현악을 담는 극장과 전기음향의 문제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국립국악원 우면당이라는 자연음향 극장의 탄생으로 한 단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악관현악의 음화와 음향은 악기 개량 문제와 깊이 연동돼 있다. 1960년대 중반 국립국악원에서 시도한 바 있는 악기 개량은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개인의 악기 개량 시도가 일부 성공했지만 국악계 전반의 악기 개량에 대한 시각은 오랫동안 보수적이었다.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설립 시 개량 악기를 둘러싼 국악계의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악관현악 양식이 서구적 현대화를 지향할수록, 작곡가 작품 중심으로 전개될수록, 국악기의 음고·조율·표준음고·음량·음향·기보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연주 기량으로만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공적 담론에서 해결되지 못한 악기 개량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북한 악기, 사적 개량악기, 서양 악기 활용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악기 개량 논쟁 한복판에 놓인 '음색'과 악기 제작 문제는 국악관현악에서 여전히 미학과 정체성 이슈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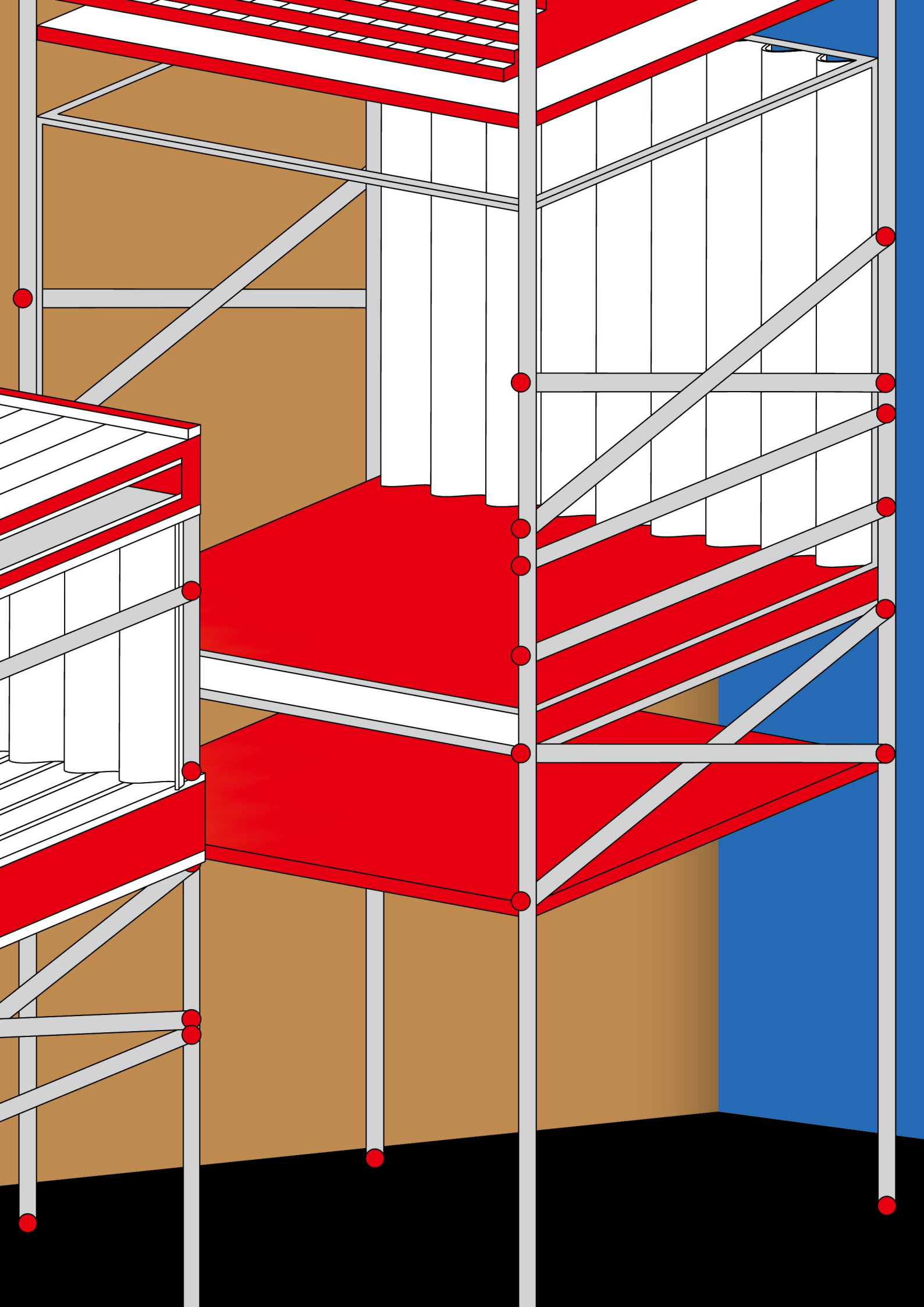
세 번째 쟁점인 국악관현악단 '운영'은 악단의 존립과 자생, 자율성, 관객의 무관심, 단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악계 졸업생의 일자리 문제를 포괄한다. 현재 40인에서 70인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는 전국 국악관현악단 가운데 민간이나 재단법인 형태는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 국공립·시립·군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자체 재원과 행정제도 안에서 운영되다 보니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자생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예산에 더해 2~3년의 임기제 예술감독직은 악단의 자율성과 장기적 안목의 정체성 구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단원의 무기력함으로 연결돼 악단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정년제 단원과 후속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운영체계 전반은 궁극적으로 국악관현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관객의 외면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 국악 제도화의 중심에 서 있던 국악관현악의 쟁점은 지난 50여 년간의 시도와 실천을 통해 진화했음을 목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관현악의 딜레마로 남아 있는 여러 쟁점은 미래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과 딜레마는 국악의 미학과 정체성이다. 국악관현악을 구성하는 악단·지휘자·작곡가·예술가·평론·기획·관객이 각각 자신 몫의 과제를 인지하고 성찰함으로써 미래의 한국 음악이 국악관현악을 통해 탄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글.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수이며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학술과 현장의 소통을 이끄는 매개자로 활동한다. 국악의 현대화 과정에 관심을 두고 국내외 학술지와 매체에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고하고 있다.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3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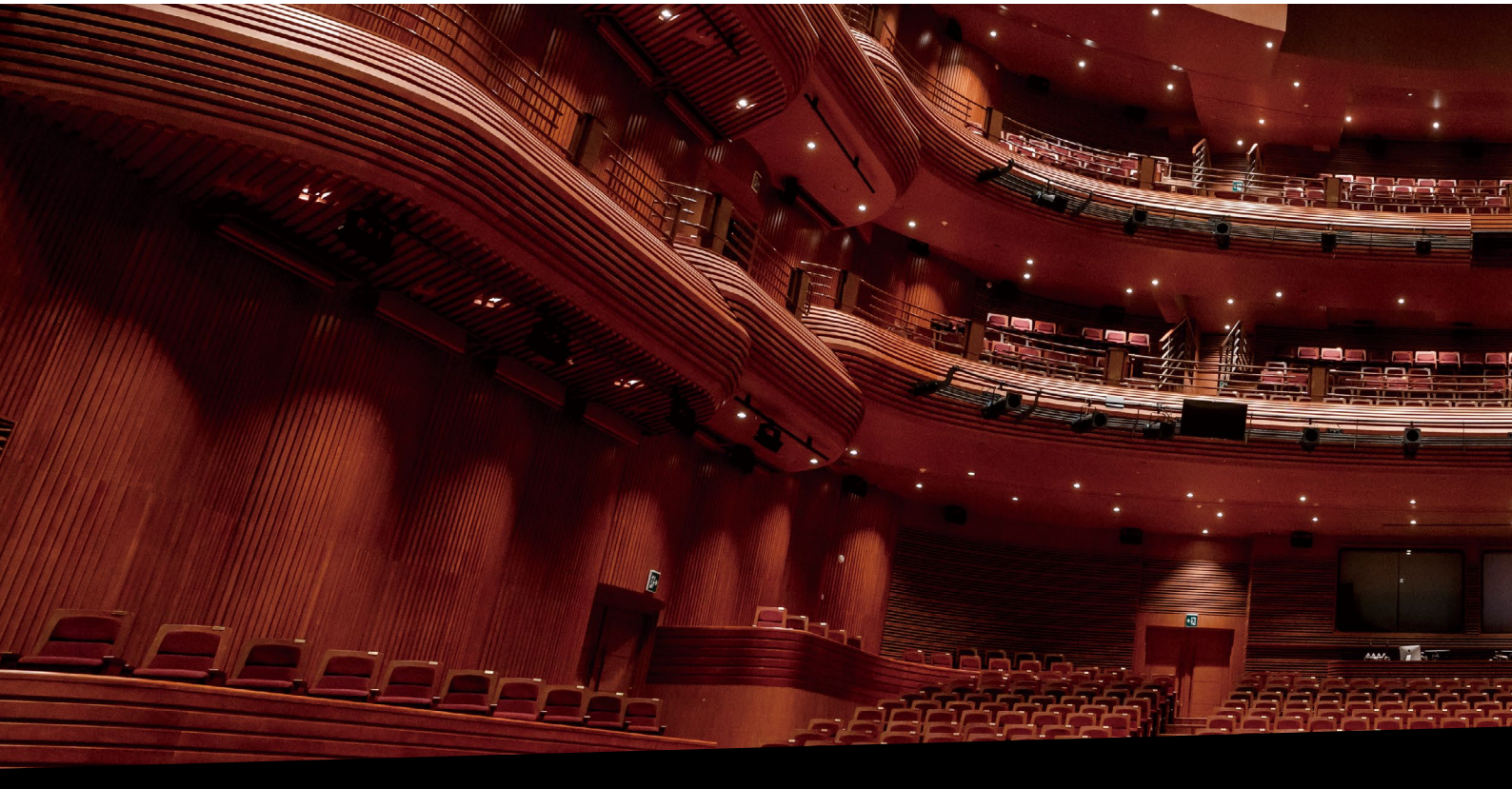


공연의 감동, 일상의 힐링

60편에 이르는 새로운 공연으로 채워진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이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이 국립극장에 부임해 100여 일간 숨 가쁘게 준비한 새 시즌이다.

관객 앞에 새로운 공연을 내놓을 때면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가득 찬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나니 불안은 멀어지고 기대가 성큼 다가옵니다. 검증된 명품 레퍼토리, 미래의 레퍼토리가 될 신선한 신작이 각기 개성을 뽐내며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디스커버리>(2023년 9월 1일)로 문을 엽니다. 여자경 지휘자의 시선으로 국악관현악 명곡을 새롭게 탐미하는 무대입니다. 국립창극단은 판소리의 깊은 멋을 담아낸 <심청가>(2023년 9월 26일~10월 1일)로, 국립무용단은 지난 3년간 이어온 '홀춤' 시리즈를 집대성하는 <온춤>(2023년 9월 1~3일, 달오름극장) 무대로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12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제작극장답게 25번째 재공연을 앞둔 국립무용단의 <묵향>을 비롯해 국립창극단의 <심청가> <패왕별희> <리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한국의 숨결> 등 지난 11회 시즌 운영으로 축적된 명작 레퍼토리 작품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국립창극단 <만신 : 페이퍼 샤먼>, 국립무용단 <사자死者의 서書>,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의 기원> <애주가>와 같이 다양한 소재와 독창적 형식의 신작도 빼놓을 수 없겠죠. 더욱이 신임 예술감독 겸 단장으로 합류한 국립창극단의 유은선과 국립무용단 김종덕, 그리고 앞으로 합류하게 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수장이 각 단체에 걸맞은 색을 유지한 채 성장·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 역시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전속단체 공연이 더욱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말엔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해 기획공연 <세종의 노래>를 무대에 올립니다.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고 합창과 서양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더해져 300명의 출연진이 해오름극장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대형 창작 작품입니다. 50년 전, 우리의 순수 창작 공연예술이 태동한 곳이 바로 이곳, 남산의 국립극장이었습니다. 당시 연극·창극·오페라·한국무용·발레·관현악·합창·가무극이라는 공연예술 장르를 총망라하는 국립예술단체가 바로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남산에서 출발해 맞이한 5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기점으로 다가올 50년을 그려보며, 국립극장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한 무대입니다.
이처럼 국립극장은 국내외 예술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기획공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무장애 공연 <합★체>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나 해외 공연예술 동향을 알 수 있는 <엔톡 라이브 플러스NTOK Live+> 6편, 해외초청작 <에브리우먼> 등이 그 예입니다. 관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극장의 의지가 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극장은 찾아주는 관객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고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국립극장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새 시즌을 열며 국립극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언제나 생동하는 국립극장'이라는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도와 변화도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시즌부터는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모두의 일상 속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오름극장을 개방합니다. 로비 층에 식음료 매장을 오픈하고, 1층 야외 테라스 해맞이쉼터를 개방해 레퍼토리시즌 작품의 상영회를 열고, 2층 로비 공간에 오픈형 북라운지를 열 예정입니다. 또 문화광장 역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활용합니다.
<아트 인 가든> <아트 인 북스> <아트 인 마르쉐> <아트 인 탈춤>으로 시민 여러분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동을 전하는 공연, 일상 속 편안한 휴식처가 될 열린 공간으로 관객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예술단체의 누적된 무대 용품을 통합 보관·운영·관리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국공립예술단체와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미래 무대예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해 한국 공연예술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자 합니다.
2023-2024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은 무엇보다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국립극장으로 다가가고자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글. **박인건**
국립극장장



최고의 솔리스트 앙상블

정통 판소리에 기반한 <심청가>부터 경극 <패왕별희>, 셰익스피어의 <리어>, <만신 : 페이퍼 사먼>까지, 연극·경극·뮤지컬이 창극 안에 다 담겼다. 여기에 <작창가 프로젝트>가 더해져, 창극 제작진 육성까지 창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줄기를 뻗어낸다.

해오름극장 1,200석이 공연 20여 일 전에 이미 전 회차 전석 매진됐다. 셰익스피어 희극 원작 창극 <베니스의 상인들>(연출 이성열·작창 한승석)을 가장 큰 해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고 했을 때 불거진 일각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었다. 이 작품을 쓴 김은성 작가는 "몇 해 전부터 창극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다. 공연을 보고 있으면 '국립창극단은 지금이 전성기구나' 할 정도로 하나같이 완성도가 높아 늘 부러웠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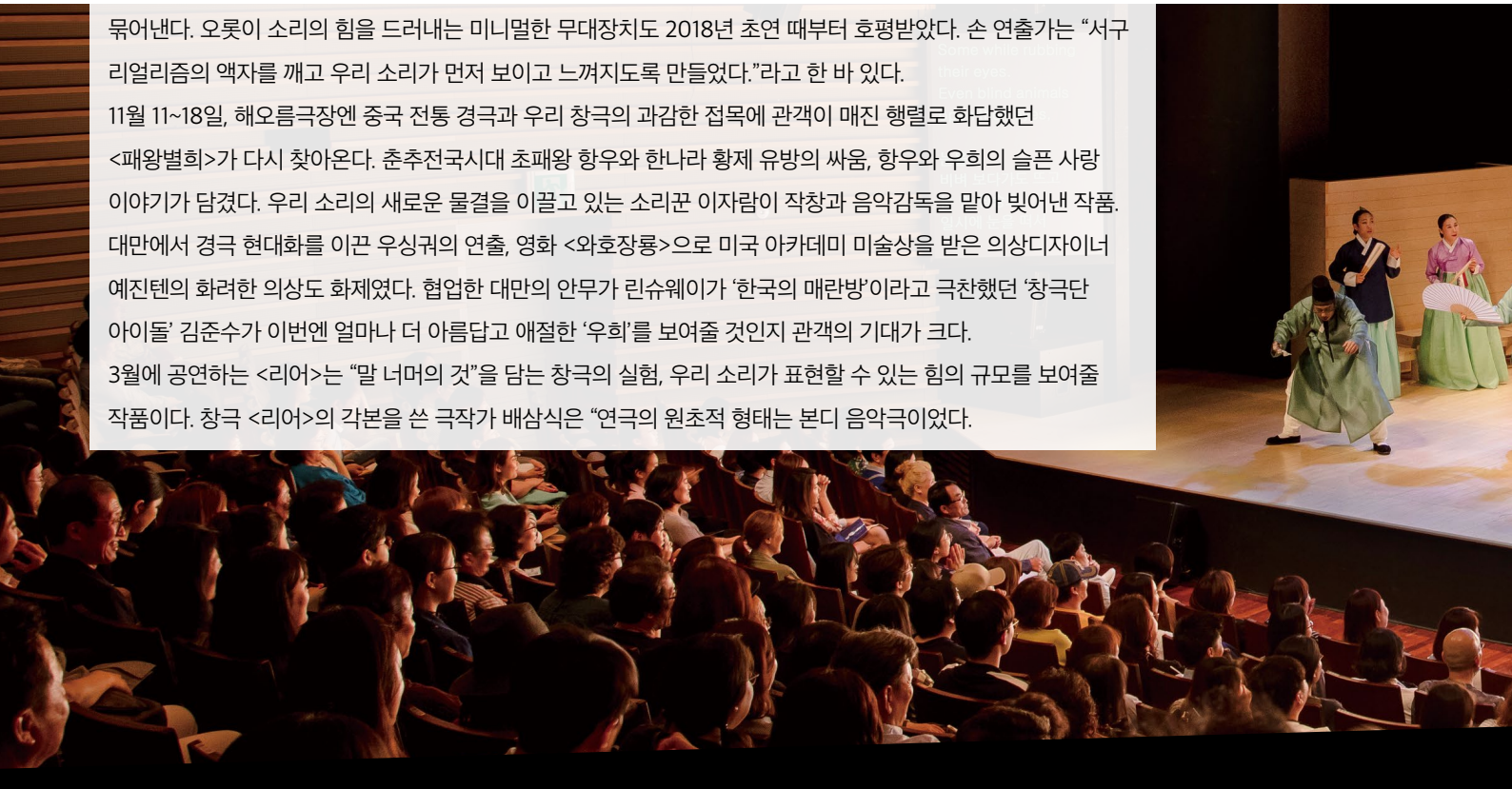
전석 매진 행렬은 국립창극단에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국립창극단은 이제 4월 새로 취임한 유은선 예술감독 체제의 첫 레퍼토리시즌을 시작한다. 유 감독은 "지금 창극단은 기존 단원들이 단단히 다진 기초 위에 실력 있는 새 단원의 젊은 소리를 쌓아 올려, 방창傍唱도 개성과 힘이 살아 있는 최고의 '솔리스트 앙상블'이 된 듯하다."라며 "전통의 재해석과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창작을 병행해 창극의 풍성해진 외연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정통의 현대적 압축 <심청가>, 경극과 판소리의 만남 <패왕별희>, 셰익스피어 비극을 재해석한 <리어>를 지나면,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쌍둥이 무녀의 삶을 한국적 미학으로 풀어낼 신작 <만신 : 페이퍼 샤먼>의 화려한 피날레가 기다린다.

근본을 갖춘 원작의 힘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심청가>가 먼저 2023-2024 레퍼토리시즌의 문을 연다. 9월 26일~10월 1일 달오름극장. 단아한 우리 소리의 힘을 무대에서 느껴보고 싶은 관객도, 그 전통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관객도 모두 만족할 만한 작품이다. 안숙선 명창이 작창을 맡아 완창 판소리의 고갱이만 추려내 2시간여 길이의 창극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무대엔 국립창극단원 김금미가 새로운 도창으로 소리와 이야기를 이끈다. 평생 전통연희를 무대에 접목하며 심청가를 변주하는 데 도가 튼 손진책 연출가가 개성 강한 소리꾼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오롯이 소리의 힘을 드러내는 미니멀한 무대장치도 2018년 초연 때부터 호평받았다. 손 연출가는 "서구 리얼리즘의 액자를 깨고 우리 소리가 먼저 보이고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한 바 있다.

11월 11~18일, 해오름극장엔 중국 전통 경극과 우리 창극의 과감한 접목에 관객이 매진 행렬로 화답했던 <패왕별희>가 다시 찾아온다. 춘추전국시대 초패왕 항우와 한나라 황제 유방의 싸움, 항우와 우희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겼다. 우리 소리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있는 소리꾼 이자람이 작창과 음악감독을 맡아 빚어낸 작품. 대만에서 경극 현대화를 이끈 우싱궈의 연출, 영화 <와호장룡>으로 미국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은 의상디자이너 예진텐의 화려한 의상도 화제였다. 협업한 대만의 안무가 린슈웨이가 '한국의 매란방'이라고 극찬했던 '창극단 아이돌' 김준수가 이번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애절한 '우희'를 보여줄 것인지 관객의 기대가 크다.

3월에 공연하는 <리어>는 "말 너머의 것"을 담는 창극의 실험, 우리 소리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의 규모를 보여줄 작품이다. 창극 <리어>의 각본을 쓴 극작가 배삼식은 "연극의 원초적 형태는 본디 음악극이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말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너머의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형식은 무척 연극적이되, 그리스비극을 닮은 역할의 코러스가 중심을 잡는다. 관객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데 탁월한 한승석의 작창이 정재일이 만든 음악을 타고 장르의 경계를 깨뜨리며 흘러넘친다. 20톤의 물을 폭 14미터, 깊이 9.6미터의 세트에 점점 채워가는 무대는 압권. 비극의 깊이, 소리의 힘을 동시에 증폭하며 관객의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새로운 한국 미학

클래식과 국악을 모두 전공한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연출과 구성을, 안숙선 명창이 작창을 맡을 예정인 신작 <만신 : 페이퍼 샤먼>은 이번 레퍼토리시즌의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창극단은 "만신이 된 여인과 그녀의 쌍둥이 무녀의 삶을 통해 인간사 희로애락을 소리에 담고, 한국의 얼과 한이 담긴 무속음악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이라며 "전통 유산인 한지 종이접기 문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한국적 미학의 무대와 의상, 미장센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유은선 감독은 "천대받는 천민이지만 타고난 기운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을 대리하는 나약한 인간인 두 샤먼 여인의 삶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축원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17~18일 <절창IV>의 주인공은 젊은 단원 조유아와 김수인. 조유아는 웹툰 원작 창극 <정년이>에서 주인공 윤정년을 맡았고, 김수인은 창극 <춘향>의 몽룡 역뿐 아니라 방송 가창 경연 프로그램 <팬텀싱어4>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각자 뛰어난 소리꾼인 단원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완창판소리> 무대 역시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1·2월 제외) 하늘극장에서 펼쳐진다.

창극은 지금 가장 뜨거운 연출가들이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신세계이자, 새 작품을 올릴 때마다 회전문 관객이 생기고 '창극단 아이돌'을 사모하는 팬들이 길게 줄을 서는 흥행 장르가 됐다. 유은선 감독은 최근 창극단의 성과를 이어받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양어깨에 지고 출발한다. 유 감독은 "작창가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 중인 작창자뿐 아니라, 한국적 소재로 판소리 어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 동시대 트렌드를 리드하면서도 창극 고유의 맛을 살려 만들 수 있는 연출가를 키워낼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 번에 두 작품을 동등한 품질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을 갖춘 '국립창극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했다. 새로운 예술감독의 첫 레퍼토리시즌, 자타 공인 '전성기'를 맞은 창극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글. **이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종교·미술·영화 등에 관해 썼고 공연을 담당하고 있다. 짧고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시대여도 여전히 굵은 이야기의 힘을 믿고, 글이 관객과 극장을 이어주길 소망하며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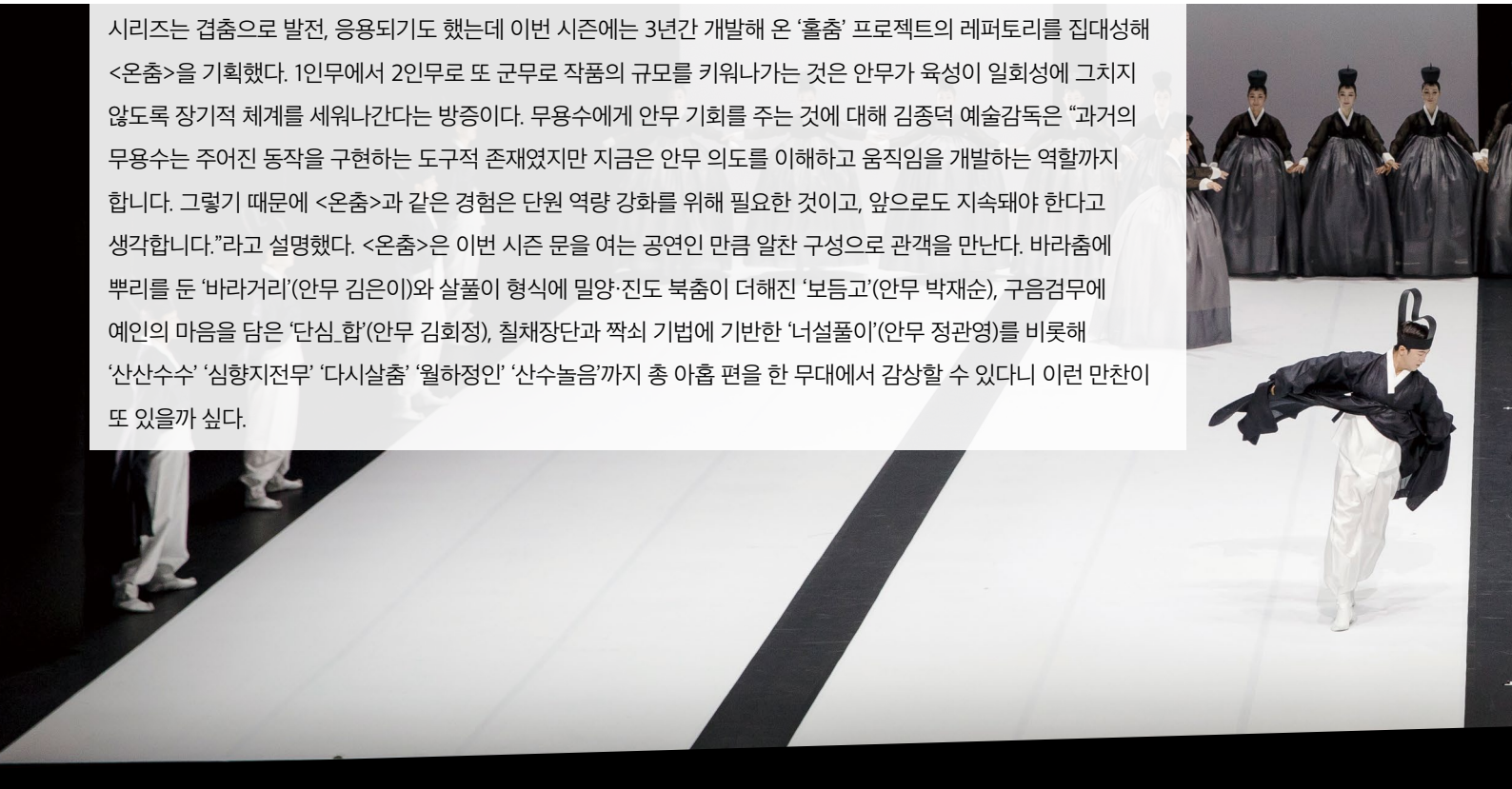
가치에 깊이 더하는 한국춤

국립무용단은 새 시즌을 맞아 신작 다섯 편, 레퍼토리 한 편 등 여섯 편의 작품을 공연하고, 댄스필름 제작과 해외 공연까지 계획해 국립극장은 물론 그 너머로 확장된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국립무용단의 이번 시즌 슬로건은 '전통과 실험을 오가며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 춤 미학'이다. 김종덕 예술감독 취임 후 첫 시즌이기에 김 감독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슬로건이다.
다섯 편의 신작이 모두 기대되지만 그중 큰 관심을 끄는, 김종덕 신임 감독의 첫 신작은 2024년 4월에 편성됐다. <사자死者의 서書>는 티베트의 전설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파드마삼바바가 남긴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를 모티프로, 죽음을 건너 고요의 바다에 이르는 여정을 망자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작품이다. 안무를 맡은 김종덕 감독은 "2018년 우연히 들른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고 죽음을 삶이 축적된 하나의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정서는 태극 안에 담겨 있다. 두 면의 대칭은 상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순환이고 서로 보완해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음과 양, 삶과 죽음도 그러하다."라고 이번 작품의 구상 동기를 밝혔다. <사자死者의 서書>에는 국립무용단 전 단원이 출연한다고 하니 오랜만에 대작의 웅장함을 기대해 본다.

안무가의 역량을 더하는 무대

지난해 더블빌로 한 무대에 오른 <신선>과 <몽유도원무>는 60분의 장편으로 독립해 이번 시즌 마지막 작품으로 공연된다. 고블린파티 안무의 <신선>과 차진엽 안무의 <몽유도원무>는 각각 '권주가勸酒歌'와 '몽유도원도'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현대무용 안무가가 참여해 관심을 끌었으며 두 작품 모두 관객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초연 당시 해외 진출에 초점을 둔 제작 방향에 따라 규모와 구성을 의도했었는데, 이번 확장된 무대에서는 어떤 형태로 재탄생될지 궁금하다. 더욱이 이 공연을 재안무나 확장판이 아닌 신작으로 구분한 만큼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리라 기대한다.
단원의 안무작으로 이뤄진 신작도 눈에 띈다. 국립무용단은 2001년 시작한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부터 안무가 육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전통춤의 동시대적 해석을 공통 미션으로 유지했다. 최근 기획된 '홀춤' 시리즈는 겹춤으로 발전, 응용되기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3년간 개발해 온 '홀춤' 프로젝트의 레퍼토리를 집대성해 <온춤>을 기획했다. 1인무에서 2인무로 또 군무로 작품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은 안무가 육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체계를 세워나간다는 방증이다. 무용수에게 안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김종덕 예술감독은 "과거의 무용수는 주어진 동작을 구현하는 도구적 존재였지만 지금은 안무 의도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춤>과 같은 경험은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온춤>은 이번 시즌 문을 여는 공연인 만큼 알찬 구성으로 관객을 만난다. 바라춤에 뿌리를 둔 '바라거리'(안무 김은이)와 살풀이 형식에 밀양·진도 북춤이 더해진 '보듬고'(안무 박재순), 구음검무에 예인의 마음을 담은 '단심_합'(안무 김회정), 칠채장단과 짝쇠 기법에 기반한 '너설풀이'(안무 정관영)를 비롯해 '산산수수' '심향지전무' '다시살춤' '월하정인' '산수놀음'까지 총 아홉 편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니 이런 만찬이 또 있을까 싶다.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무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열며 모두의 행운을 비는 우리 춤 한마당 <축제祝·祭>도 펼쳐진다. 매년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명절 공연이 <새날> <설 바람> <추석 만월>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새 이름 <축제>를 달았다. 김종덕 예술감독은 우리 전통 춤이 때와 장소, 대상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명절 공연에는 궁중·민속·종교의 춤이 혼재하고 있어 아쉬웠다며,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무속 춤으로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 매년 콘셉트를 정해서 통일된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고 하니 내년에는 <축제>가 아닌 다른 제목의 명절 공연을 만날 수도 있겠다.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묵향>은 4년 만에 해외 공연에 나선다. 2023년 10월, 한국·캐나다 수교, 한국·미국 동맹을 기념해 캐나다 오타와 국립예술센터와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현지 관객을 만날 계획이다. 2013년 초연 후 국내는 물론 다양한 해외 무대에서 호평을 받아온 <묵향>은 윤성주 안무가가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재직 시절 창작하고, 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신무용의 대가 고故 최현의 '군자무'를 바탕으로 매란국죽의 장면마다 세련된 미장센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아왔다. 북미 투어를 마친 후, 12월에는 해오름극장에서 국내 공연도 펼친다.

앞으로의 가치를 여는 무대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안무가 프로젝트'는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계속된다. 올 연말,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2기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안무가들은 국립극장의 창·제작 시스템하에서 30분 내외 길이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이들이 만든 작품 중 우수작은 향후 장편 작품으로 발전시킬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 1기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메아리'(안무 정보경)는 댄스 콘셉트 필름 제작을 앞두고 있으며 완성 후에는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연장을 찾지 못한 관객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작품을 만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립무용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김종덕 예술감독은 "창단 61주년을 맞은 국립무용단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창작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동시대적, 즉 컨템퍼러리 댄스로서 이슈화할 만한 작품은 부족했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한국 창작 춤의 방향을 제시하는 창작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립무용단의 비전을 밝혔다. 2012년 시즌제 도입 후 열두 번째를 맞는 2023-2024 레퍼토리시즌을 통해 김종덕 감독의 바람대로 국립무용단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단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며, 전통과 실험의 균형을 잡아가며 한국의 춤 미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김예림**

무용평론가.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평론가로 등단한 후 여러 매체에 춤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장성 있는 평론가를 지향하며 오늘도 극장으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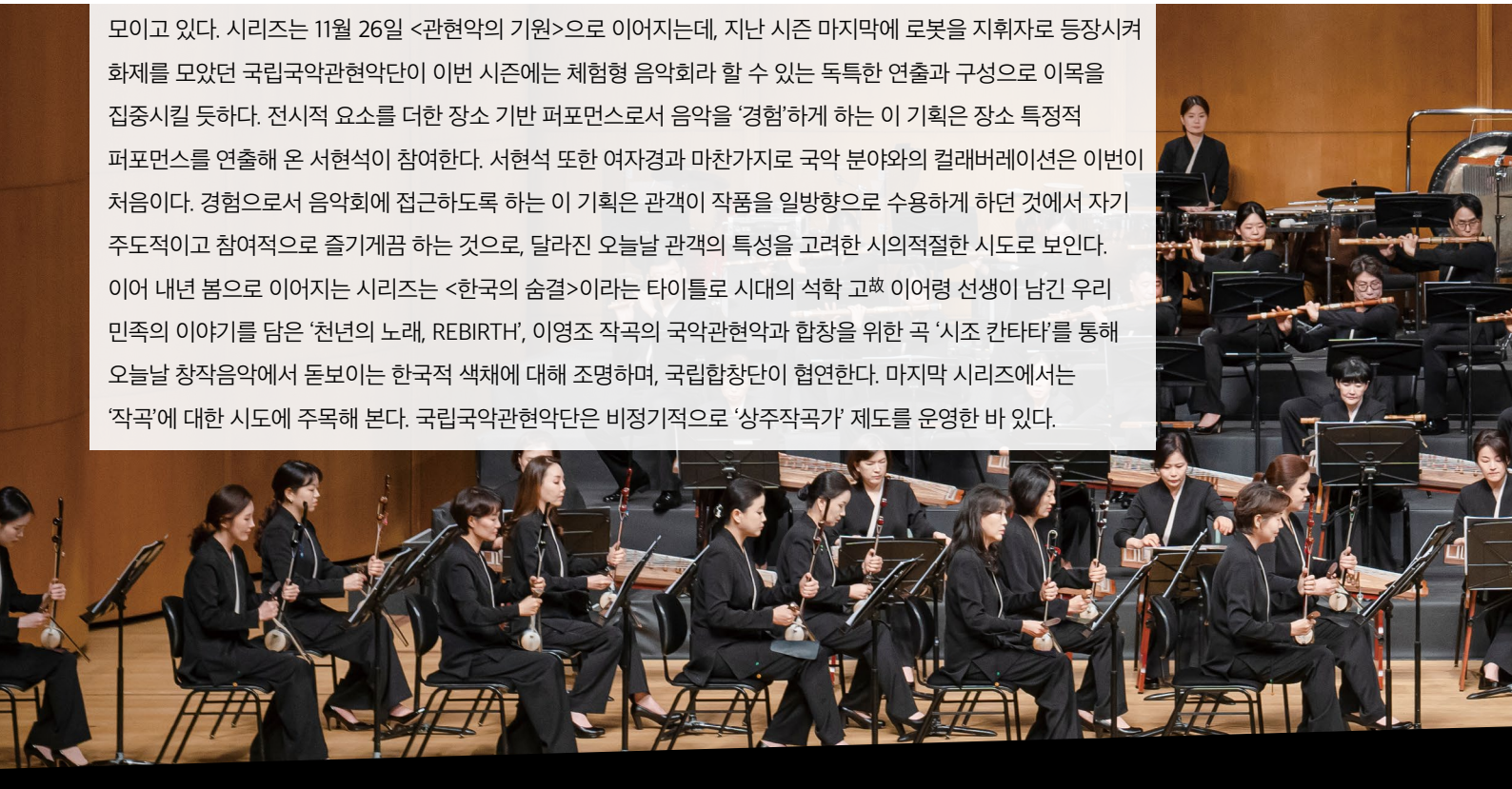
시도를 거듭하겠다는 출사표

‘국악’은 그 시작을 논할 수 없는 장르지만, ‘국악관현악’은 이제 막 반세기를 조금 넘은 역사를 지닌 비교적 현대의 장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이래 선봉에서 장르의 발전을 꾀해 왔다. 이번 시즌 어떤 실험과 시도를 담았을까.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발전’의 과제를 풀고자 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보며 생각해 본다. ‘과연 무엇이 오늘날 단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일까?’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주로 뛰어난 리더의 선구자적 안목과 디테일까지 완벽한 청사진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국악관현악의 길지 않은 역사를 돌아봐도 그러하다. 박범훈·이상규처럼 이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적 리더가 있었고, 작곡과 지휘를 병행하는 실연의 형태가 낯설지 않던 시기가 분명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의 특성을 보면, 다소 리스크를 안더라도 즉각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를 바꿔가며 성장하는 조직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누구보다 다양하게 시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도에 반영하는 발 빠른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는 시대. 즉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시도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민첩한 조직력이 생존에 핵심적인 키가 된 것이다.
2023-2024 레퍼토리시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스케줄은, 예술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시즌 또한 부단히 ‘시도’해 보겠다는 출사표로 읽힌다. 바로 이 점에서 여느 시즌보다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게 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위기를 기회로, 나아가 계속되는 ‘시도’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최전선의 실험이 담긴 관현악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빼곡한 공연 캘린더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은 역시나 메인 디시라 할 수 있는 ‘관현악시리즈’이다. 총 4개의 공연이 진행되는 ‘관현악시리즈’는 올해 장르의 본질에 대해 더욱 철저히 고민하는 가운데 타 예술 분야에 국악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만드는 기획이 돋보인다. 그 첫 번째 공연 <디스커버리>의 지휘봉은 여자경(현 대전시향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이 맡았다. 여성 음악인의 불모지와 다름없던 지휘계에서 꾸준히 뚜렷한 성과를 보여온 여자경과 떠나는 새로운 음악적 탐험에 단체는 물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시리즈는 11월 26일 <관현악의 기원>으로 이어지는데, 지난 시즌 마지막에 로봇을 지휘자로 등장시켜 화제를 모았던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번 시즌에는 체험형 음악회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과 구성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듯하다. 전시적 요소를 더한 장소 기반 퍼포먼스로서 음악을 ‘경험’하게 하는 이 기획은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를 연출해 온 서현석이 참여한다. 서현석 또한 여자경과 마찬가지로 국악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험으로서 음악회에 접근하도록 하는 이 기획은 관객이 작품을 일방향으로 수용하게 하던 것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참여적으로 즐기게끔 하는 것으로, 달라진 오늘날 관객의 특성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시도로 보인다.
이어 내년 봄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는 <한국의 숨결>이라는 타이틀로 시대의 석학 고故 이어령 선생이 남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은 ‘천년의 노래, REBIRTH’, 이영조 작곡의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곡 ‘시조 칸타타’를 통해 오늘날 창작음악에서 돋보이는 한국적 색채에 대해 조명하며, 국립합창단이 협연한다.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작곡’에 대한 시도에 주목해 본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비정기적으로 ‘상주작곡가’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창작 국악관현악곡이 탄생했다. 창작곡이 동시대에 사랑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탄생한 많은 곡 중에서 현재까지 연주되며 그 가치가 회자되는 곡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작곡가 김성국·최지혜의 곡과 해당 작곡가들의 새로운 초연곡을 시리즈의 마지막 공연인 <탄誕, 명작의 생生>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단 25년이 된 여미순 악장은 단체의 터줏대감으로서 이 곡들의 탄생 과정을 다시 떠올리며 김성국의 '영원한 왕국'과 최지혜의 '감정의 집'을 "정말 좋은 작품이라 난도가 높아 힘듦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로 하여금 잘 해내고 싶게 만드는 곡"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창작음악에서 드러나는 연주와 작곡 간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미래 비전을 향한 꾸준함

국악에 대한 관객의 문턱을 낮추며 국악 대중화에 기여해 온 <정오의 음악회>도 계속된다. 본래 연주자 중심에 장단으로 음악적 합을 맞췄던 전통음악의 특성상 관현악의 '지휘자'라는 역할은 언제나 그 해석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올해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 프로젝트'에 함께한 세 명의 지휘자, 채길룡·김지수·최동호가 참여하니 젊은 지휘자의 저력에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올해도 해설에는 방송인 이금희가 함께한다. 어린이 음악회 <나무가 노래하면 별들은 춤을 출까>(가제)는 '자연'을 주제로 체험적 요소로 오감을 일깨우는 공연을 양혜정 연출과 함께하며, 청소년을 위한 공연인 <소소 음악회>는 미래의 주요 관객인 10대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음악적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애주가愛酒歌>에서는 전통주를 함께 즐기며 자연 속 풍류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외 연말연시를 위한 특별한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연말 <2023 윈터 콘서트>는 음악감독 김문정이, <2024 신년 음악회>는 지휘자 정치용이 음악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즌을 장식한다. 국립창극단 김수인이 멤버로 있는 남성 4중창단 '크레즐', 하피스트 황세희 등이 신년의 첫 협연자로 나선다.

'지휘' '연출' '작곡' 등 국악관현악을 타 장르와 구분 짓는 핵심 요소에 고루 접근하고 시도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이번 시즌이 주목된다. 다양한 시도와 기민한 대처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국립 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이러한 다양한 점검과 검증의 시도가 유관 단체들의 창작 활동을 자극하는 긍정적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

글. 김정은
음악 칼럼니스트. 월간 『객석』 음악기자, 제일기획 마케팅 플래너로 예술과 대중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왔다. 현재 라이브러리 대표로 문화예술계 플랫폼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이번 레퍼토리시즌은 국립극장 기획공연과 해외 초청 공연을 비롯해 8개 국립·민간 예술단체와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힌다.

가장 빠르게,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을 만나는 기쁨. 국립극장의 2023-2024 레퍼토리시즌을 기다리는 이유다. 9월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는 지금, 8월의 뜨거운 더위도 견딜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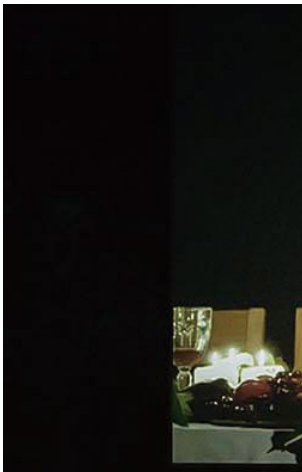
장벽을 없애고 역사를 기념하는 공연

국립극장 2023-2024 레퍼토리시즌 작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장벽 없는 극장'이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려진다. 먼저 2022년에 이어 다시 돌아온 오합과 오체 쌍둥이 형제의 무대 <합★체>가 그 문을 연다.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지난해 초연돼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기존의 수어 통역 형식의 무장애 공연을 뛰어넘어 그림자 통역, 라디오 드라마 같은 음성 해설 등 다양한 시도로도 주목받았지만, 무엇보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말 그대로 벽 없이 자유롭게Barrier-free '합체'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여름방학 동안 마음이 훌쩍 커진 형제의 성장기에 관객은 웃음과 눈물로 응원을 보내게 된다. 새롭게 캐스팅된 배우들의 합이 더욱 기대되는데, 오합 역에 홍준기, 오체 역에 강은일 배우가 함께한다.

신작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는 '장애를 극복한 천사 헬렌 켈러'의 실제 사건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녀의 도전적 삶은 이미 세계에서 연극과 영화로도 제작됐지만, 이번 작품은 헬렌 켈러를 세상으로 이끈 스승 앤 설리번의 시점으로 각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우리가 미처 잘 몰랐던 사회주의자와 소수자 인권운동가 등 헬렌 켈러의 다양한 면을 부각해 그녀의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줄리엣과 줄리엣> <나, 혜석> 등의 작품에서 정형화된 여성성을 대담하게 해석해 온 이기쁨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셰익스피어 연극 <맥베스>는 젠더프리 연극으로 재해석된다. 젠더프리 연극은 성별이 고정된 역할이더라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캐스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맥베스 왕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 배우로 설정하는데, 그동안 맥베스 왕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를 부각한 것과는 다르게 한결 진전된 파격을 선보인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수상한 김미란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농인 창작자와 청인 창작자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맥베스를 기대해 보자.

지난 두 번의 시즌 동안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청소년과 음악으로 소통해 온 음악회 <함께, 봄>이 <2024 함께, 봄>으로 돌아온다니 반갑다. 세계적인 음악가 금난새의 지휘로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장애인 연주자의 협연이 만들어내는 감동적 무대가 될 것이다. 2023년의 마무리는 특별 기획공연 <세종의 노래>와 함께하면 어떨까.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리는 이번 무대는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가 함께 만들고 합창단, 서양 오케스트라까지 가세해 출연 인원만 300명이 넘는 대형 작품이다. 국립극장 개관 기념작에도 참여했던 손진책·박범훈·국수호가 제작진으로 참여해 국립극장의 지난 역사를 몸소 기억하고 작품에 담는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백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을 직접 만든 조선의 대왕이자, 소헌왕후를 향한 지극한 마음의 한 남자 세종의 사랑과 인생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화제의 해외 공연

유럽 최정상급 무대를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엔톡 라이브 플러스NTOK Live+>는 시즌마다 매진을 이룰 정도로 많은 팬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이다. 11월에 선보이는 세 작품은 모두 국내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신작이니 더욱 놓칠 수 없다. 클린튼 다이어 연출의 <오셀로>는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도록 만든 연출력으로도 화제가 됐는데, 가정폭력으로 점철되는 급진적인 클라이맥스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갈매기>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체호프를 선보인다. <예르마>로 로런스 올리비에상 최우수 리바이벌상을 수상한 사이먼 스톤의 <메디아>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작품마다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밀로 라우의 연극 <에브리우먼>이 드디어 한국을 찾는다. 휴고 폰 호프만슈탈이 쓴, 희곡 <예더만Jedermann>의 요소가 작품 곳곳에 담겨있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한 여성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죽음의 알레고리를 우아하게 그렸다.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피할 수 없는 여정에 관객을 초대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와 함께하는 작품

이번 시즌에는 총 7개 예술단체와 2개 공연예술축제가 함께한다. 연극·클래식·오페라·발레·현대무용·합창, 전통 공연 등 그야말로 누구나의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공연의 성찬이 차려지니 남산으로 향하는 발길이 즐겁다.

국립오페라단은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총 3편의 전막 오페라를 선보이며, 국제현대무용제MODAFE 개막작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와 폐막작 <호페쉬 퀙터 컴퍼니>,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샤요 국립무용극장 <익스트림 바디>까지 무용 작품 세 편이 준비돼 있다.

2024년 1월을 여는 신년 음악회도 다양한 장르로 즐길 수 있는데, 국립오페라단의 <큰 울림, 기쁜 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4 신년 음악회>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2024 시즌 오프닝 콘서트>가 무대에 오른다. 국립합창단의 <한국 가곡의 모든 것>, 국립현대무용단 <더블빌>, 그리고 국립발레단의 <KNB 무브먼트 시리즈 9>까지 최정상급 국립단체의 공연이 기대된다. 여기에 사뮈엘 베케트의 동명 희곡을 공연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와 장애인 사물놀이예술단 '땀띠'의 결성 20주년 기념 공연 <땀띠 날다 20년>도 놓칠 수 없다.

자, 이제 달력을 펼치고 보고 싶은 공연을 픽! 해보자.

글. **최여정**

문화평론가로 『사랑이라고 쓰고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쓰겠다』와 『이럴 때 연극』 등을 펴냈다.



60가지 기다림

7월의 <여우락 페스티벌>과 8월의 공동주최 공연,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까지. 시즌 휴지 기간마저 관객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은 국립극장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04일간 펼쳐지는 2023-2024 레퍼토리시즌을 연다. 신작 24편, 레퍼토리 9편, 상설공연 14편, 공동주최 13편까지 어느 때보다 다종다양한 작품으로 수놓인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공연을 살펴보자.



2023.9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디스커버리>
2023년 9월 1일 해오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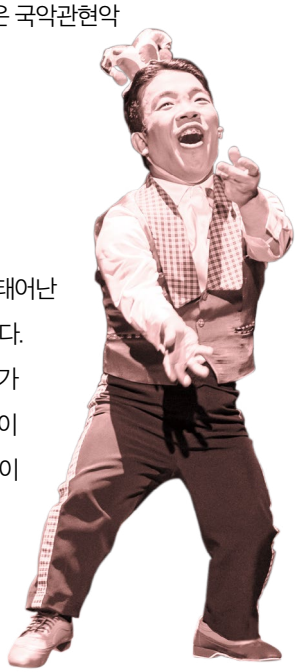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주목한 지휘자의 시선으로 레퍼토리의 색다른 면모를 탐미하는 <디스커버리>는 여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 지휘자, 여자경과 함께한다. '악보의 모든 비밀을 알 때까지 공부하는 지휘자'로 알려진 그가 발견해 낼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비밀에 한층 기대가 높아진다.

국립무용단 <온춤>
2023년 9월 1~3일 달오름극장

2020년부터 전통춤 개발을 묵묵히 실행해 온 국립무용단이 지난 3년간 천착해 온 시리즈를 집대성하는 자리다. '새로운 전통 쓰기'에 도전하는 국립무용단원 열 명은 한량무·진쇠춤·살풀이·바라춤·검무 등의 움직임을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안무가의 내공을 더하고, 일부 작품은 군무로 확장해 한층 깊어진 모습으로 관객을 만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23 오케스트라 이음>
2023년 9월 9일 해오름극장

신진 음악가를 발굴하고 창작음악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의 일환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연주자 60명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증명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수석단원을 지낸 박천지가 지휘해 예술성을 인정받은 국악관현악 작품을 새롭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립극장 기획공연 <합★체>
2023년 9월 14~17일 달오름극장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음악극으로, 저신장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키 작은 쌍둥이 형제 '합'과 '체'의 열혈 성장기를 담았다. 극 중 라디오 DJ가 음성 해설을 하고, 수어 통역 배우가 함께 출연한다. 작곡가 고수영, 무대디자이너 여신동이 새롭게 합류하고, 홍준기와 강은일이 합과 체에 새로이 캐스팅돼 신선한 에너지를 더한다.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2023년 9월 21~24일 해오름극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찾아온다. '길을 잃은 여자'라는 뜻의 이 작품은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비극적 러브스토리로 당대 사회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진실한 사랑을 다룬다. <호프만의 이야기> <마농>으로 국립오페라단과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지휘자 세바스티안 랑 레싱과 연출가 뱅상 부사르가 의기투합해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창극단 <심청가>
2023년 9월 26일~10월 1일 달오름극장

창극의 뿌리인 판소리의 본질을 오롯이 살려 호평받은 <심청가>가 4년 만에 더욱 깊어진 모습으로 찾아온다.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손진책이 대본과 연출을, 명창 안숙선이 작창을 맡아 판소리 고유의 멋과 맛을 듬뿍 담았다.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이태섭의 무대, 한국적 색을 구현한 차이킴 김영진의 의상은 소리의 집중도를 높이며 작품에 볼거리를 제공한다.

MODAFE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
2023년 9월 28~29일 해오름극장

세계 최정상 현대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가 국제현대무용제MODAFE 개막작을 들고 5년 만에 내한한다. 동시대 최고 안무가로 손꼽히는 크리스탈 파이트, 에드워드 클러그, 나다브 젤너가 함께해 특별한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이번 작품은 "그 자체로 경이적 현상"으로 평가받는 이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2023.10

SPAF 샤요 국립무용단 <익스트림 바디>
2023년 10월 6~7일 해오름극장

프랑스 안무가 라시드 우람단의 <익스트림 바디>는 서커스 예술과 현대무용이 결합한 작품으로 비행과 무중력 상태, 서스펜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신체를 통해 매혹적으로 표현한다. 실제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나단 폴린, 니나 카프레즈가 8명의 곡예사와 중력을 거부한 채 비행하며, 자유롭고 짜릿한 무대를 연출한다.

MODAFE <호페쉬 퀙터 컴퍼니>
2023년 10월 14~15일 해오름극장

세계적 현대무용 안무가 호페쉬 퀙터가 국제현대무용제 폐막작 무대에 서기 위해 9년 만에 내한한다. 폭력에 대한 무관심을 비꼬는 <Clowns>와 부드럽고 연약한 에너지의 <The Fix>, 두 작품은 우리 시대의 극단적 대조를 표상한다. 무용수들의 경이로운 움직임과 호페쉬 퀙터가 작곡한 서사적인 선율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해독제가 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파고든다.





2023.11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2023년 11월 11~18일 해오름극장

2019년 초연 후 7개월 만에 예술의전당에서 재공연할 만큼 연이은 흥행으로 화제를 모은 창극 <패왕별희>가 돌아온다. 손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경극, 소리에 우주를 담아내는 창극이 만나 완성된 대서사시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다. 대만 경극의 대가 우싱궈가 연출을, 소리꾼 이자람이 음악을 맡고, 아카데미 미술상에 빛나는 예진텐이 의상을 맡았다.

엔톡 라이브 플러스NTOK Live+
NT Live <오셀로> / NT Live <갈매기> / ITA Live <메디아>
2023년 11월 17~26일 달오름극장

공연 영상화의 선두주자인 NT Live의 <오셀로>와 <갈매기>는 2022년 초연한 최신작으로, 각각 셰익스피어와 안톤 체호프의 고전을 재탄생시켜 현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컨템퍼러리 연극의 선구자인 ITA Live의 <메디아>도 놓칠 수 없는 작품으로,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에우리피데스 비극을 재해석해 인간 존재의 어두운 내면을 파헤친 명작이다.
※ 2024년 4월 12~21일 프로그램 미정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I <관현악의 기원>
2023년 11월 26일 하늘극장

이번 작품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그간 지속해 온 혁신과 실험의 연장선에 있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뛰어넘은 이머시브 공연을 통해 관객은 또 다른 각도에서 국악관현악단을 바라보고 감각을 일깨워 새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장소 기반 퍼포먼스와 전시를 선보이며 관람과 체험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해 온 연출가 서현석의 기발한 상상이 시선을 모은다.

국립오페라단 <나부코>
2023년 11월 30일~12월 3일 해오름극장

겹친 불행과 슬픔에 힘들어하던 청년 베르디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오페라 <나부코>가 2021년 성공적인 초연 후 다시 한번 국립극장 무대를 찾는다. 민족의 해방과 독립, 통일의 염원이 담긴 이 작품은 한국 관객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스테파노 포다의 파격적이고 웅장한 연출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번 무대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2023.12

국립극장 기획공연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2023년 12월 6~10일 달오름극장

시청각을 잃은 헬렌 켈러, 그리고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던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설리번의 시점에서 다룬 배리어프리 신작이다. 헬렌 켈러가 남긴 연설과 저술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연출은 재치 있는 해석과 감각적인 표현력으로 주목받아 온 이기쁨이 맡았다. 특히 헬렌 켈러가 느낀 악기의 소리 진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국립무용단 <묵향>
2023년 12월 14~17일 해오름극장

스타일리시한 한국춤의 재해석으로 세계 무용계의 러브콜을 받아온 <묵향>이 4년 만에 해오름극장으로 돌아온다. 2013년 초연 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객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사군자를 소재로 선비 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 미니멀리즘 미학을 제시했다. 섬세하고 깊은 호흡의 춤사위, 세련되고 단아한 미장센이 오래도록 짙은 잔향을 남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23 윈터 콘서트>
2023년 12월 16~17일 하늘극장

2023년 세밑, <윈터 콘서트>가 돌아온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관현악 편성으로 영화음악, 캐럴, 국악관현악 명곡, 게스트 협연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김문정이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았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파크컴퍼니 <고도를 기다리며>
2023년 12월 19일~2024년 2월 18일 달오름극장

1953년 초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현대 고전,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동명의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실체 없는 존재 '고도'를 기다리는 디디와 고고.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침묵과 기다림은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국립극장 기획공연 <세종의 노래>
2023년 12월 29~31일 해오름극장

1950년, 서울 부민관 자리에 세워진 국립극장이 대구와 명동을 거쳐 1973년 남산 장충동으로 터를 옮겼다. 2023년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하며, 손진책·박범훈·국수호 등 내로라하는 원로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완성한 작품이다. 세종대왕의 '월인천강지곡'을 모티프로 삼았으며, 3개 전속단체와 150인조 합창단, 34인조 서양 오케스트라가 더해져 300여 명이 무대에 선다.

2024.1

국립오페라단 신년 음악회 <큰 울림, 기쁜 소리>
2024년 1월 5~6일 해오름극장

국립오페라단의 신년 음악회 첫째 날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의 서곡, 프란츠 에하르 <유쾌한 미망인>의 아리아와 왈츠 등 유쾌하고 흥겨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다음 날 공연에서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한여름 밤의 꿈> <죽음의 도시> 등 2024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일 작품을 최정상 성악가의 무대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24 신년 음악회>
2024년 1월 12일 해오름극장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 음악회>가 2024년에도 열린다. 우리 음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동시대 창작음악의 가능성을 열어온 마에스트로 정치용의 지휘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국악관현악 명곡은 물론 하피스트 황세희와 JTBC <팬텀싱어4> 출신 팀 크레즐의 협연 무대도 만날 수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4 시즌 오프닝 콘서트>
2024년 1월 14일 해오름극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일반 대중부터 클래식 애호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2024년 신년 음악회를 연다. 상임지휘자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에 맞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오페라·국악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4.2

국립무용단 <축제祝·祭>
2024년 2월 7~11일 하늘극장

품격 있는 전통춤의 진가를 선보여 온 국립무용단의 명절 기획공연, <축제祝·祭>가 하늘극장에서 펼쳐진다.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의미를 담아 춤으로 액운을 떨치길 기원하는 무대다. 지전춤·진쇠춤·교방살풀이춤 등 전통 춤사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소품으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새롭게 재구성한 군무도 포함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국립오페라단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2024년 2월 22~25일 해오름극장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아치노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유쾌한 희극 오페라다. 알제리 총독 무스타파가 아내를 노예와 짝지어 주고, 한눈에 반한 이사벨라를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꾸미는 한 편의 코미디. 활기찬 서곡으로 시작해 아름다운 아리아의 여운이 전편을 감도는 가운데, 명랑하고 경쾌한 곡이 거침없이 전개된다.

2024.3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II <한국의 숨결>
2024년 3월 29일 해오름극장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이 깃든 한국적 색채의 합창 두 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무대가 찾아온다. 전통적 요소가 살아 숨 쉬는 한국 합창 '시조 칸타타'와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노랫말을 지은 '천년의 노래, REBIRTH'다. 국내 합창음악의 선두주자인 국립합창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빚어낼 앙상블의 진한 감동을 놓치지 말자.

국립창극단 <리어>
2024년 3월 29일~4월 7일 달오름극장

물이 차오른 무대, 인간의 욕망과 삶의 비극이 뒤엉켜 거세게 소용돌이친다. 셰익스피어 비극 『리어왕』을 다시 쓴 배삼식의 글에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 한승석과 정재일의 음악, 감각을 깨우는 정영두의 치밀한 연출과 안무가 더해져 세상에 없던 창극 <리어>가 탄생했다. 무대 위, 살아내기 위해 저마다 드러내는 욕망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024.4

국립극장 기획공연 <2024 함께, 봄>
2024년 4월 13일 해오름극장

국립극장의 대표 배리어프리 연주회 <함께, 봄>이 이번 시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가 구분 없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함께', 따스한 '봄'을 맞이할 예정이다. 금난새의 지휘를 필두로 장애인 연주자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와 멋진 협연을 선보인다. 서로의 다름에 귀 기울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이루는 조화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국립무용단 <사자死者의 서書>
2024년 4월 25~27일 해오름극장

예술감독 김종덕이 취임 후 첫 안무에 나선 신작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걷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가 남긴 경전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를 모티프로 삼았다. 간결하고 상징적인 미장센 위에 한국춤 특유의 깊이 있는 움직임이 어우러진다. 고요한 성찰을 통해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나무가 노래하면 별들은 춤을 출까>(가제)
2024년 4월 25일~5월 5일 하늘극장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꾸준히 제작해 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신작으로 연극 놀이 전문가로 활동 중인 연출가 양혜정이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대지를 딛고 선 채 오감으로 감각하는 아이의 하루는 늘 새로운 경험과 놀이로 충만하다. 자연이 지닌 원초적 생명력을 매개로 다채로운 국악기와 놀이를 접목해 아이의 예술 감각을 일깨울 예정이다.

2024.5

해외초청작 밀로 라우 <에브리우먼>
2024년 5월 10~12일 달오름극장

'동시대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연출가'로 꼽히는 밀로 라우의 연극 <에브리우먼>이 한국을 찾는다. 샤우뷔네 베를린이 제작해 2020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함께 극을 쓰고 만든 배우 우르시나 라르디가 죽음을 앞둔 스크린 속 여인과 대화하는 형식의 1인극이다. 삶과 죽음, 고독과 연대를 다룬 대화가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국립합창단 <한국 가곡의 모든 것>
2024년 5월 10일 해오름극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가곡 무대를 선물한다. 사랑과 그리움, 한국의 푸른 산과 내, 그리운 고향과 가족, 내 나라와 겨레를 주제로 한 가곡은 아름다운 시어, 주옥같은 선율로 뭉클함을 안겨준다. 기존 곡뿐만 아니라 위촉 초연곡까지 더해진 다채로운 한국 가곡의 매력에 빠져보자.

국립창극단 <절창IV>
2024년 5월 17~18일 달오름극장

판소리의 동시대성을 참신한 구성으로 표현하는 국립창극단의 프로젝트 공연, 2024년 <절창IV>의 주인공은 창극 <정년이>의 주인공 윤정년 역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유아와 입단 2년 만에 창극 <춘향>의 몽룡 역을 맡고, JTBC <팬텀싱어 4>에 출연해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한 김수인이다. 오랫동안 판소리를 수련한 두 MZ세대 소리꾼의 무대를 기대해 보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2024년 5월 24~25일 달오름극장

교과서 속 박제된 음악에서 벗어나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를 두루 갖춘 무대로,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청소년 맞춤 공연이다. 특히 지적 호기심과 예술적 감성을 깨울 다양한 국악관현악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기 청소년의 고민과 관심사를 섬세하게 녹여낸 창작곡이 주목할 만하다.

사물놀이예술단 땀띠 <땀띠 날다 20년>
2024년 5월 31~6월 2일 하늘극장

장애인 사물놀이예술단 땀띠의 결성 20주년 기념작이다. 서로 다른 장애를 지닌 멤버가 음악으로 만나 땀으로 엮어온 시간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다.

2024.6

국립국악관현악단 야외 음악회 <애주가愛酒歌>
2024년 6월 1~2일 문화광장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술 한 잔에도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멋과 운치를 즐겨왔다. 이번 작품은 탁 트인 야외광장에서 우리 음악과 전통술이 어우러지는 오감 만족 무대다. 초여름 푸른 숲과 청명한 바람이 함께하는 남산의 한 자락, 우리 음악과 우리 술이 빚어내는 오늘날의 풍류를 만끽해 보자.

국립현대무용단 <더블빌>
2024년 6월 7~9일 해오름극장

국립현대무용단이 국내외 현대무용계를 아우르는 두 안무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긴 시간 집요한 탐구로 자신만의 독자적 장르를 구축한 국내외 안무가의 작품이다. 특히 국내 안무작으로는 국립현대무용단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 김성용이 대부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만들었던 2021년 '프로세스 인잇'을 토대로 완성한 <정글-감각과 반응>을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국립극장 기획공연 <맥베스>
2024년 6월 13~16일 달오름극장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재탄생한다.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수상한 김미란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를 한국수어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 농인 배우가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역을 맡아 선과 악 사이에 모순된 모습을 가진 인물의 비극적 운명을 누아르적으로 재해석해 보여준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V <탄誕, 명작의 생生>
2024년 6월 14일 해오름극장

2016년 도입한 '상주작곡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작곡가와 교류하고 국악관현악의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어느덧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이번 작품에서는 '상주작곡가'에서 초연한 김성국의 국악관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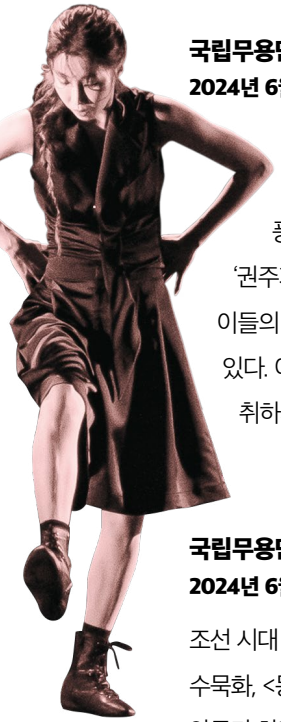
'영원한 왕국'과 최지혜의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을 재연하고, 신작을 위촉해 무대에 올린다.

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 시리즈 9>
2024년 6월 22~23일 하늘극장

2015년부터 지속해 온 국립발레단의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로 무용수 개인의 강점을 살린 개성 있는 안무작을 펼쳐 보이는 자리다. 그 결실의 하나로, 창작 발레 활성화에 기여한 강효형의 <허난설헌—수월경화> <호이 랑>과 클래식 발레를 재안무한 송정빈의 <해적> <돈키호테>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시리즈 역시 오디션을 통해 안무가와 안무작을 선발해 올릴 예정이다.

국립창극단 <만신 : 페이퍼 사먼>
2024년 6월 26~30일 해오름극장

만신이 된 여인과 쌍둥이 무녀의 삶을 통해 인간사 희로애락을 소리와 극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판소리와 민속음악의 근간에 자리한 무속음악, 전통한지와 종이접기를 모티프로 한 미장센은 한국적 미학의 정수를 관통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박칼린이 연출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 안숙선이 작창을 맡았다.



국립무용단 <신선>
2024년 6월 27, 29일 달오름극장

술에 담긴 풍류를 그려낸 작품이다. 안무가 그룹 고블린파티는 전통을 바라보는 독창적 시각에 해학과 풍자를 더해 삶의 위로에 다가가는 풍류를 담았다. '권주가'가 흐르는 가운데 취한 듯 비틀대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이들의 몸짓은 한국무용 특유의 어르고 푸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이로 재탄생한 춤사위는 관객의 취흥을 돋워 불현듯 춤에 취하게 한다.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2024년 6월 28, 30일 달오름극장

조선 시대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춤으로 그려낸 한 편의 수묵화, <몽유도원무>로 새롭게 탄생했다. 안무가 차진엽은 '굽이굽이' 펼쳐진 한국의 산세를 창작의 원천으로 삼아, 현실 세계의 험준한 여정을 지나 이상 세계인 '도원'에 이르는 과정을 감각적인 춤과 몽환적 음악, 현실과 이상 세계를 넘나드는 미장센으로 담아냈다.





상설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023년 9월 7일, 10월 19일, 11월 2일,
2024년 3월 14일, 4월 11일, 5월 9일
해오름극장

2009년 시작해 15년간 쉼 없이 이어온 <정오의 음악회>는 쉽고 친절한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국악관현악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국립극장 대표 브런치 콘서트다. 친숙하고 편안한 음악부터 여러 장르 음악가가 함께하며 이금희의 해설과 소담한 간식, 남산의 풍광이 더해져 평범한 일상 속 품격 있는 즐거움을 전한다. 2023년 하반기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차세대 유망 지휘자 3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2023년 9월 16일, 10월 14일, 11월 11일, 12월 30일(송년판소리),
2024년 3월 16일, 4월 13일, 5월 11일, 6월 15일
하늘극장

1984년부터 지금까지 단단한 내공으로 한국 판소리의 지평을 다진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평생 수련을 숙명으로 알고 정진해 온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 귀명창들이 없었다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소리판이다. 2023년 하반기 귀한 무대를 이어나가는 명창은 유영애·김영자·정순임이다. 12월은 특별히 <송년판소리>로 안숙선 명창과 국립창극단원의 소리 향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매 공연 친절한 해설도 더해진다.

일상에 활기를 더하다













더이상 국립극장은 객석에 앉아 공연 감상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해오름극장 안 휴게 공간을 오픈하고 건물 밖 문화광장을 활성화해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공간이자 쉼터로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일반에 존재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면으로 감각하는 공간으로 극장을 탈바꿈하고, '국립' 문화예술 기관이라는 정체성에도 힘을 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언제든 방문해 즐기는 해오름극장

로비층 레스토랑 / 1층 해맞이쉼터 <달빛 상영회> / 2층 북라운지

해오름극장을 재개관할 때부터 주인을 찾지 못했던 로비층L에 '센트럴 윤잇'이 문을 연다. 건강한 식재료로 극장을 방문하는 이들의 허기를 채워줄 이곳에선 스마트팜에서 키운 샐러드와 브런치, 각종 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8월 말 오픈 예정)

1층 야외 테라스, 해맞이쉼터에는 지난 시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퍼토리시즌 작품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8월 한 달간, 창극 <귀토>를 시작으로 <무용극 호동>, 창극 <나무, 물고기, 달>까지 총 3편이 상영되며 관람 인원은 최대 100명이다. (8월 9·16·23일,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시원하게 뚫린 통창으로 남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2층에는 오픈형 북라운지가 조성된다.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국립극장 발간 도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예술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비치하고, 북라운지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1층 카페 10% 할인권도 제공한다. (9월 말 오픈 예정)

매주 토요일 문화광장을 메울 '아트 인 시리즈'

<아트 인 마르쉐> <아트 인 가든> <아트 인 북스> <아트 인 탈춤>

남산자락에 위치한 국립극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 초록으로 둘러싸인 해오름극장 앞 너른 터, 문화광장이 있다. 봄 가을, 토요일마다 친환경 예술 장터 <아트 인 마르쉐>를 열어 지난해만 1만 3천여 명이 건강한 먹을거리와 공연을 즐긴 공간이기도 하다. 2023-2024 새 시즌을 맞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서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기 위해 문화광장의 프로그램을 질적·양적으로 확장한다.

친환경 농작물과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아트 인 마르쉐>는 이번 시즌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식물 마켓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아트 인 가든>(9월 2일, 10월 7일), 북페어와 북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 야외 독서광장 <아트 인 북스>(9월 9일, 10월 14일), 천하제일탈공작소가 함께하며 회차마다 세 가지 탈춤 동작을 배울 수 있는 <아트 인 탈춤>(9월 23일, 10월 28일)이 '아트 인 시리즈'로 더해진다. 음악이 있는 먹을거리에서 출발해, 식물·책·춤까지 영역을 확대한 셈. 맛있는 음식을 누고, 함께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춤을 춘다. 그 안에서 나만의 취미를 만들고, 지친 일상에 초록을 더해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펼쳐질 '아트 인 시리즈'를 주목해 보자.

이거 알면 공연 인싸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2023-202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4일간 관객과 함께 숨 가쁘게 호흡할 예정. 공연의 경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국립극장의 열두 번째 레퍼토리시즌을 미리 알아보자.

1.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의 혁신적 신작과 우수 레퍼토리 공연, 다양한 국립극장 기획제작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국립극장의 연간 시즌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엔톡 라이브 플러스
② 페스티벌시즌
③ 레퍼토리시즌
④ 해외 초청 시리즈

2. 대화 속 두 사람은 각각 어떤 공연을 관람했을까요? ㉠과 ㉡에 들어갈 알맞은 작품명을 고르세요.

ㄱ. 국립창극단 신작이 발표됐네! 만신이 된 여인과 쌍둥이 무녀의 삶을 통해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극으로 표현한 작품이래. 박칼린이 연출을 맡아 더 화제인가 봐. 내년 여름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 꼭 가봐야겠다.
ㄴ. 나는 여기에 가보고 싶어. 4월에 주운숙 명창의 <완창판소리>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안숙선 선생과 제자들이 특별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의 마무리로 이 공연을 보면 더욱 뜻깊을 것 같아.

① ㄱ:<만신 : 페이퍼 샤먼>　ㄴ:<송년판소리>
② ㄱ:<정년이>　ㄴ:<국악인의 밤>
③ ㄱ:<에브리우먼>　ㄴ:<신년판소리>
④ ㄱ:<축제(祝·祭)>　ㄴ:<완창판소리>

3. <보기>는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비장미가 강하고, 예술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판소리의 한 대목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아이고 아버지, 불효 여식은 요만큼도 생각 마옵시고
사는 대로 사시다가 어서어서 눈을 떠서 대명천지 다시 보고
좋은 데 장가 들어 칠십생남七十生男 하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億十萬金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불쌍한 우리 부친 위로하여 주옵소서"
(…)
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맛자락 무릅쓰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루
만경창파萬頃蒼波 갈매기 격格으로 떴다, 물에 가 풍, 빠져노니

① '심청가'
② '춘향가'
③ '적벽가'
④ '흥보가'

4. 다음 대화 속 두 사람이 함께 관람한 공연은 무엇일까요?

ㄱ. 항우와 우희의 절절한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
ㄴ. 판소리와 경극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줄은 몰랐어. 색다르고 웅장하더라.
ㄷ. 의상도 정말 아름다웠지?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은 디자이너가 참여했대.

① <삼국지연의>
② <패왕별희>
③ <산조>
④ <와호장룡>

5. 올해 9월, 2023-2024 레퍼토리시즌 중 가장 먼저 관객을 찾아갈 국립무용단의 <온춤>. 다음 중 <온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① 국립무용단의 역량 있는 무용수들이 전통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래.
② 2020년부터 천착해 온 <홀춤> 시리즈를 집대성한 작품이야.
③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독무로만 진행되는 무대라는데?
④ 한량무·진쇠춤·살풀이 등의 움직임을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했어.

6. <보기>는 국립무용단이 이번 레퍼토리시즌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두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 ㉡의 작품명이 알맞게 연결된 답을 고르세요.

<보기>
ㄱ.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경전을 모티프로 한 ㉠**이 작품**은 망자의 시선으로 의식과 상념을 건너 고요의 바다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간다. 세상 속 시름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작품으로, 고요한 성찰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ㄴ. 조선시대 화가 안견의 산수화를 춤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현실 세계의 험준한 여정을 지나 이상 세계인 '도원'에 이르는 과정을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 생동하는 개성을 담은 춤사위는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 절묘한 경지를 선보이며 그림과 춤의 경계를 허문다.

① ㉠:<축제>　㉡:<진경산수화>
② ㉠:<아함부 경전>　㉡:<홀춤>
③ ㉠:<신선>　㉡:<무릉도원>
④ ㉠:<사자(死者)의 서(書)>　㉡:<몽유도원무>

※진행 기간 : 2023년 8월 1일 ~ 8월 20일
※참여 방법 : 큐알코드를 스캔한 후 문제의 정답과 성함, 연락처를 제출해주세요.
※정답 발표 : 월간 국립극장 8월호,
고득점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공연 티켓 1인 2매씩, 12명
<심청가> 9월 28일(목) 15:00 4명
<묵향> 12월 14일(목) 19:30 4명
<관현악의 기원> 11월 26일(일) 15:00 4명



커피 쿠폰 1인 1잔, 1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7. 미니멀리즘으로 풀어낸 한국춤의 미학,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묵향>이 4년 만에 해외 공연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음 중 <묵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매·난·국·죽 사군자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② 프랑스·덴마크·홍콩·일본 등 세계 무대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③『삼국사기』속 왕자 호동과 낙랑 공주의 설화를 각색한 작품이다.
④ 세계적인 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8. <보기>를 읽고 ㉠과 ㉡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답을 고르세요.

<보기>
ㄱ. 한국 무용계의 안무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무용단의 <㉠>가 새 시즌에도 계속된다. 선발된 신진 안무가들은 국립극장의 30분 내외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작품 중 우수작은 향후 장편 작품으로 발전시킬 기회도 주어진다.
ㄴ.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실력 있는 지휘자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를 운영한다. 이는 동시대 공연예술의 인적 저변을 넓히기 위한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젝트로, 선정된 지휘자 3인은 시연회를 거쳐 하반기 <정오의 음악회> 무대에 서게 된다.

① ㉠:<절창 시리즈> ㉡:<관현악 시리즈>
② ㉠:<안무가 프로젝트> ㉡:<지휘자 프로젝트>
③ ㉠:<홀춤 프로젝트> ㉡:<연주자 프로젝트>
④ ㉠:<안무가 콩쿠르> ㉡:<이음 음악제>

9.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중 국립국악관현악단 기획공연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친구와 연인, 가족이 함께하는 연말연시 특별 공연 <윈터 콘서트>
② 소년소녀를 위한 청소년 맞춤형 국악 콘서트 <소소 음악회>
③ 한 달에 한 번 즐기는 고품격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
④ 커플·부부만 참여할 수 있는 낭만 콘서트 <국립극장의 프러포즈>

10. 국립극장은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예술을 결합한 '국립극장 문화시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국립극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국립극장의 문화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① 서커스와 거리공연이 결합된 <아트 인 서커스>
② 도서 시장과 함께 토크콘서트, 야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아트 인 북스>
③ 친환경 채소 시장과 야외 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아트 인 마르쉐>
④ 탈춤 기본무를 배워볼 수 있는 시민탈춤배움터 <아트 인 탈춤>

11. 국립극장은 장벽 없이 모두 함께 공연을 즐기기 바라며 <합★체>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2024 함께, 봄> 등의 무장애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이 운동의 올바른 명칭은 무엇일까요?

① 젠더프리
② 핸즈프리
③ 그랑프리
④ 배리어프리

12. <보기>가 설명하는 '이 작품'으로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보기>
올해는 국립극장이 명동에서 장충동 남산으로 터를 옮겨 신축 개관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남산 이전 기념공연인 **이 작품**은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단체와 합창·서양오케스트라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대왕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을 직접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 했던 그의 깊은 뜻과 소헌왕후를 향한 사랑 등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질 예정. 달빛이 모든 백성에게 비추어지길 바라는 대왕의 마음이 담긴 **이 작품**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자.

① <절창Ⅳ>
② <세종의 노래>
③ <소소 음악회>
④ <완창판소리>

수고하셨습니다.

23-24 레퍼토리시즌 일정표

2023

9월

관현악시리즈 I **디스커버리**	국립국악관현악단
9/1	해오름극장
온춤	국립무용단
9/1 - 9/3	달오름극장
정오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9/7	해오름극장
2023 오케스트라 이음	국립국악관현악단
9/9	해오름극장
합★체	국립극장
9/14 - 9/17	달오름극장
완창판소리	국립창극단
9/16	하늘극장
라 트라비아타	국립오페라단
9/21 - 9/24	해오름극장
심청가	국립창극단
9/26 - 10/1	달오름극장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	국제현대무용제MODAFE
9/28 - 9/29	해오름극장

10월

샤요 국립무용극장 **익스트림 바디**	서울국제공연예술축제SPAF
10/6 - 10/7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국립창극단
10/14	하늘극장
호페쉬 쉑터 컴퍼니	국제현대무용제MODAFE
10/14 - 10/15	해오름극장
정오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10/19	해오름극장

11월

정오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11/2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국립창극단
11/11	하늘극장
패왕별희	국립창극단
11/11 - 11/18	해오름극장
엔톡 라이브 플러스	국립극장
11/17 - 11/26	달오름극장
관현악시리즈 II **관현악의 기원**	국립국악관현악단
11/26	하늘극장
나부코	국립오페라단
11/30 - 12/3	해오름극장

12월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국립극장
12/6 - 12/10	달오름극장
묵향	국립무용단
12/14- 12/17	해오름극장
2023 윈터 콘서트	국립국악관현악단
12/16 - 12/17	하늘극장
고도를 기다리며	파크컴퍼니
12/19 - 2/18	달오름극장
세종의 노래	국립극장
12/29 - 12/31	해오름극장
송년판소리	국립창극단
12/30	하늘극장



프로그램, 공연일정, 출연자 등 공연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월

신년 음악회 **큰 울림, 기쁜 소리** — 국립오페라단
1/5 - 1/6 — 해오름극장

2024 신년 음악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1/12 — 해오름극장

2024 시즌 오프닝 콘서트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1/14 — 해오름극장

2월

축제<祝 · 祭> — 국립무용단
2/7 - 2/11 — 하늘극장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 국립오페라단
2/22 - 2/25 — 해오름극장

3월

정오의 음악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3/14 —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 국립창극단
3/16 — 하늘극장

관현악시리즈III **한국의 숨결** — 국립국악관현악단
3/29 — 해오름극장

리어 — 국립창극단
3/29 - 4/7 — 달오름극장

4월

정오의 음악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4/11 — 해오름극장

엔톡 라이브 플러스 — 국립극장
4/12 - 4/21 — 달오름극장

2024 함께, 봄 — 국립극장
4/13 —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 국립창극단
4/13 — 하늘극장

<사자死者의 서書> — 국립무용단
4/25 - 4/27 — 해오름극장

어린이 음악회
나무가 노래하면 별들은 춤을 출까 가제 — 국립국악관현악단
4/25 - 5/5 — 하늘극장

5월

정오의 음악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5/9 — 해오름극장

에브리우먼 — 샤우뷔네 베를린
5/10 - 5/12 — 달오름극장

한국 가곡의 모든 것 — 국립합창단
5/10 — 해오름극장

완창판소리 — 국립창극단
5/11 — 하늘극장

절창IV — 국립창극단
5/17 - 5/18 — 달오름극장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 국립국악관현악단
5/24 - 5/25 — 달오름극장

땀띠 날다 20년 — 사물놀이 땀띠
5/31 - 6/2 — 하늘극장

6월

야외 음악회 **<애주가愛酒歌>** — 국립국악관현악단
6/1 - 6/2 — 문화광장

국립현대무용단 **더블빌** — 국립현대무용단
6/7 - 6/9 — 해오름극장

맥베스 — 국립극장
6/13 - 6/16 — 달오름극장

관현악시리즈IV **탄誕, 명작의 생生** — 국립국악관현악단
6/14 — 해오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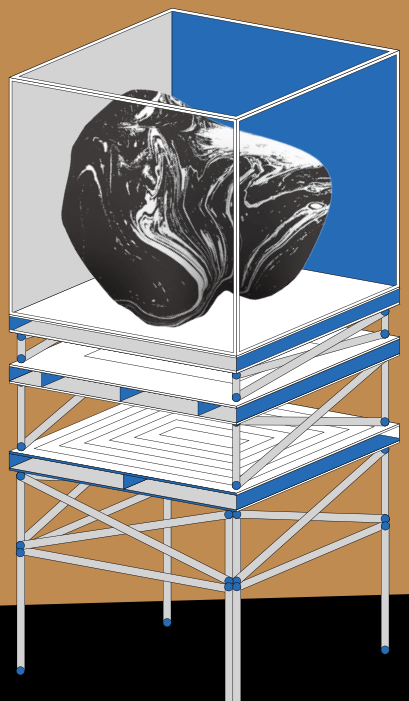
완창판소리 — 국립창극단
6/15 — 하늘극장

KNB 무브먼트 시리즈 9 — 국립발레단
6/22 - 6/23 — 하늘극장

만신 : 페이퍼 샤먼 — 국립창극단
6/26 - 6/30 — 해오름극장

신선 — 국립무용단
6/27, 6/29 — 달오름극장

몽유도원무 — 국립무용단
6/28, 6/30 — 달오름극장





무대, 탐미



STAGES

첫 만남의 설렘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새 시즌의 시작에 맞춰 새로운 지휘자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첫 만남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 지휘자 여자경이다.
악단의 대표 레퍼토리가 그의 음악적 해석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오는 9월 1일,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디스커버리> 공연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2023-2024 레퍼토리시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첫 번째 공연이며, 지휘자를 통한 음악적 재발견을 꾀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나태주 '풀꽃')던 유명한 시의 한 구절처럼, 레퍼토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탄생한 창작 작품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아서, 여러 가지 해석의 색깔을 입을 준비를 한 상태다. 역사에 남는 명곡은 그렇게 덧칠의 연주로 거듭나 오색찬란한 관점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 '명작'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립국악관현악단을 통해 창작되고 레퍼토리가 된 유수의 작품들에도 이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시선의 지휘자 '발견'에 나섰다. 그 첫 번째 바통을 지휘자 여자경이 잡았다.



도전의 연결고리

여자경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에게는 2020년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개그맨 유재석의 하프 연주 도전기에 등장한 지휘자로 친숙하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올해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여자경은 활동 최전선에 있는 음악가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중견 지휘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국악관현악단과의 연주는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도전.' 여자경이 걸어온 지휘의 여정에는 편견을 넘어선 도전의 스토리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여자.' 국내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예술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한 그를 지겹도록 따라다니던 수식어였다. '여성 지휘자'도, '한국인'도 낯선 오스트리아에서 그는 '한국인 여성 지휘자'로 성과를 거뒀다. 재학 중에는 매 학기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야나체크 장학금' 등을 받았고, 2008년 프로코피예프 국제 지휘 콩쿠르 3위에 올랐다. 프랑스 브장송 지휘 콩쿠르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내에서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경기필하모닉, 광주·대구·대전·부산·강릉·수원 시립교향악단 등 다수의 단체와 호흡을 맞췄다.

그가 자신을 둘러싼 수식어를 걷어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있다. 충분히 준비한 뒤 포디엄에 설 것, 연주자들에게 예의를 다할 것, 지루하지 않은 리허설을 할 것. 연주자에게 초점을 둔 그의 전략은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오는 9월, '국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인 여자경의 전략이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을 거두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점을 부각할 최선의 작품

최근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포디엄을 자유롭게 오간 사례로는 지휘자 김덕기·장윤성·정치용·최수열 등이 있다. 이번 공연은 여자경이 이 성공 사례를 이을 다음 주자가 될 출발선일지도 모른다.

최성환의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의 상징 같은 작품이다. 1976년, 북한의 작곡가 최성환이 서양 관현악과 국악관현악이 섞인 배합 관현악을 위해 작곡한 이 작품은, 본조 아리랑의 선율을 바탕으로 하는 변주 형식을 띤다.

2008년, 이 작품은 한 외국인 지휘자에 의해 우리 민족의 심지에 더욱 강력하게 꽂혔다.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북한의 동평양대극장 무대에서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했다. 이 순간은 '아리랑 환상곡'을 남북한 공통의 정서를 담은 대표작으로 올려놓았다. 현재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편곡 버전도 만들어져, 서양 관현악과 국악관현악에서 모두 사랑받는 레퍼토리다. 서양 관현악 버전이 아리랑 선율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준다면, 국악관현악 버전은 아리랑 음악의 본질적 정서를 건드리며 더욱 긴 여운을 남긴다. 여자경 또한 서양 관현악단과 이 작품을 선보인 바 있어 가용할 수 있는 해석의 폭이 넓다.

협주로 대변하는 목소리

운신의 폭을 넓힌 작품 선정은 협주곡에서도 돋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첼로 협주곡을 각각 한 곡씩 선보일 예정이다. 두 곡 모두 서양 악기와 협업으로 무대에 오른다.

최지혜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미소'는 그중에서도 악기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수난의 시기였던 한국에 의료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활동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삶을 담아냈다. 작곡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바꾸어준 위대한 분의 삶을 곡으로 써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첼로가 로제타 선교사님의 마음이 되어 곡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1장은 촉촉하고 습한 새벽,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선교사의 이미지와 당시 조선의 배경을 그리고,

2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첼로의 선율이 노래한다.

3장에서는 청·일 점령으로 혼란스러운 조선의 상황 속에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다한 선교사의 마지막 미소를 그린다.

무대 위에는 선교사가 첼로로 변신해 무대 위에 오른 것 같아 보인다. 작품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국악관현악단이 그려내는 조선의 분위기가 생생해서, 애절한 첼로 선율의 카덴차는 연극이나 영화의 독백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까지 지닌다.

악보에는 없는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지휘자는 악보에 적힌 것을, 그리고 악보에 적히지 않은 것을 직시해 내야 한다. 악보에 적히지 않은 것은,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다. 이는 지휘자에 따라, 또 연주 단체에 따라 다르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이해식 작곡의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은 앞서 설명한 곡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춤과 민속음악, 무속음악 등 우리나라 토속 음악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시에 현대음악적 표현법을 따르고 있어 징이나 자바라·장고·북 등의 전통 타악기는 물론이고 탬버린·우드블록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독특한 고유의 음향을 보유하고 있다. 악보 이면에 담긴 매력적 사운드를 찾는 과정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사실 기존의 레퍼토리에서 새로운 음악적 발견을 해나가는 작업은 무척 섬세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연주자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아주 미세한 차이를 표현해 내는 테크닉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휘자와 연주 단체, 양쪽의 손발이 모두 맞아야 하기에 음악적으로도 난도가 높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면 작품은 새 생명을 얻는다.

여자경의 지휘는 정통의 해석을 따르는 큰 틀을 제시한다. 눈에 띄게 선명한 바톤 테크닉은 관현악단을 아우르는 지붕처럼 움직인다. 그가 자주 선보이는 레퍼토리 중 하나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다. 선율의 흐름과 거대한 다이내믹의 매력을 살리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이처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발견'은, 한 지휘자가 보유한 음악 세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시간이다.



글. **허서현**

『객석』 기자.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예술과 대중 사이의 유쾌한 전달자를 꿈꾸며, 부끄럽지 않은 문장을 위해 고민한다.



전통춤, 새 페이지를 열다

**<홀춤> 시리즈로 전통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온 국립무용단이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홀춤'과 '겹춤'의 형태로 전통춤의 기본과 오늘의 시대정신을 착실히 결합해 보려 한 실험은 이번 무대에서 '온춤'이라는 머리말을 달고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독백의 무대에서 출발한 춤과 그 춤이 여럿이 함께하는 형태로 확장된 무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볼거리가 된다. 동시에 이 무대는 '새로운 전통 쓰기'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꽉 채우고 더 완전해진 춤의 미학

9월 1일부터 3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이는 신작 <온춤>은 그동안 홀춤과 겹춤으로 무대에 올랐던 단원들이 한층 농익은 기량과 춤사위로 총출동하는 무대다. 단순히 지난 작품을 다시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다. 기존의 독무와 이인무는 더 성숙한 몸짓으로 돌아오고, 특히 독무를 군무로 확장한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 이번 공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홀춤> 프로젝트는 독무-이인무-군무라는 춤 형태의 차이로, 한 작품을 변주하는 실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 시즌 선보인 작품을 엄선해 발전시키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 이상의 완성도를 지향하는 사업에 가깝다. 실제로 매번 선정된 우수작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진화하며 안정된 레퍼토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정체성은 이번 <온춤>에도 잘 담겨 있다. 앞서 세 편의 시리즈 연작이 '홀춤'이라는 기준점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이번엔 그 기준점을 제목에서 생략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나선 것부터가 그렇다. 이는 특정한 춤의 형태에 얽매이기보다 그런 차이를 통해 전통춤의 미감을 다채롭게 알리겠다는 포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어쨌든 '홀춤'이라는 기본형으로 시작해 지난 시즌 '겹춤'으로 파생된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독무에서 이인무로 변형된 시점에서 군무로 확장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춤 형태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제목이나 형식이야 어떻든 결국엔 이런 무대를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춤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동시대 감수성과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지난 세 차례의 공연은 춤꾼의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출중한 안무 역량으로 색다른 전통춤을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전통춤'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이름에 걸맞은 완성도다. 오늘날의 공연 환경에 맞춘 형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통춤'이라는 문화유산이 지닌 깊이와 성숙함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공연과 반복된 보완을 통해 또다시 <온춤>의 무대에 오르는 작품 아홉 편은 단순한 레퍼토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기에는 전통춤에 대한 춤꾼의 생각과 경험, 21세기의 공연 환경과 미감에 대한 고민이 고루 담겨 있다. 아울러 수년에 걸쳐 숙성된 춤 철학과 동작의 섬세함도 녹아 있다. 즉 <온춤>에서는 '온'이라는 접두사가 지닌 뜻처럼 프로젝트의 첫 무대보다 더 충만하고 한층 완성에 가까워진 새 전통춤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1



2



3



4



5



1 <산산수수>
2 <심향지전무>
3 <다시살춤>
4 <월하정인>
5 <산수놀음>

전통춤의 새로운 재미를 만나는 시간

<온춤>은 이름처럼 이제까지의 시리즈 중 질적·양적으로 가장 풍성한 전통춤의 향연을 보여준다. 우선 앞서 세 차례의 공연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세 편의 독무와 두 편의 이인무가 구성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물론 새로운 전통춤의 등장을 기다리는 관객에게는 독무에서 파격적으로 확장한 네 편의 군무 작품이 기존의 독무와 확실히 비교되는 재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홀춤으로 두 시즌에 걸쳐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낸 세 편의 작품은 그새 더 농익은 춤꾼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풍류를 즐기는 사내의 모습을 한량무로 담아낸 윤성철의 <산산수수>는 여전히 기품 있는 춤사위를 선보인다. 남성 춤 고유의 절제된 동작과 의연함이 거문고 산조의 밀고 당기는 즉흥적 선율과 만나 그려내는 자연의 이치를 이번에도 기대해볼 만하다. 무속에서 유래한 신칼대신무의 특성에 정현숙만의 호흡과 몸짓을 담아낸 <심향지전무>는 이번에도 등장과 함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신칼대신무와는 다른 동작과 구성의 변화는 여전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또 살풀이춤에 소고를 결합한 <다시살춤> 역시 또 한 번의 이색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무구로 표현하는 내용인 만큼 1년 동안 더 깊어진 정소연의 내면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 시즌에서 화제를 모은 두 편의 겹춤도 돌아온다. 신윤복의 동명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월하정인>은 박기환과 박지은이 기존 전통춤 소품작 '사랑가'와 '태평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독무인 한량무를 이인무로 바꾼 황태인 안무의 <산수놀음> 역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최연소 안무가이던 황태인이 이도윤과 함께 꾸미는 무대는 MZ세대가 그리는 오늘의 선비상을 접할 기회다.

무엇보다 이번 <온춤>에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것은 독무 또는 이인무에서 군무로 확장된 네 편의 작품이다. 먼저 남성독무, 혼성 이인무가 두 편의 남성 군무로 탈바꿈했다. 승무의 북 가락과 진도북춤을 접목해 <홀춤> 첫 시즌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보듬고>는 5인의 춤꾼으로 새 무대를 꾸린다. 박재순의 존재감이 다섯 명의 몸짓으로 대체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 시즌에서 혼성 겹춤으로 시선을 끈 <너설풀이>는 이번에는 남성 4인무로 재편됐다. 여성 춤꾼과 연주를 주고받으며 농악 짝쇠 기법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던 정관영은 남성 춤꾼과 새롭게 호흡을 맞추며 한층 강렬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돌아온다.

<온춤>에서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시도는 여성 독무에서 대규모 혼성 군무로 재해석한 두 작품이다. 바라를 치는 행위와 울림의 본질을 고민한 김은이의 <바라거리>는 홀춤 중에서도 유독 춤꾼의 독백 같은 인상이 강한 작품이었다. 이번 무대는 여성 춤꾼 5인과 남성 춤꾼 1인이 함께 만들며 치유와 정화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인상적으로 그려내게 된다. 한편 김회정의 <단심_합>은 프로젝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홀춤II>에서 독무로 시작해 <홀춤III : 홀춤과 겹춤>에서 이인무로 변신했고, 이번 <온춤>에서는 여성 6인 남성 4인의 대규모 혼성 군무로 거듭 확장했기 때문이다. '합'이라는 소제목을 더해 그 의미를 다진 이 작품은 여성과 남성 춤꾼들이 따로 또 같이 재현하는 검무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온춤' 안에서 추구하는 오늘의 전통춤

다양한 형태의 춤이 아홉 편의 작품으로 구성돼 무대에 펼쳐지는 동안 관객은 비로소 부분적으로 감상해 오던 전통춤의 다양한 영역을 고루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통춤의 참맛은 외형적 특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내재한 춤꾼의 고민과 수련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분히 교육적이기도 하다. 홀로 추거나 둘이 짝을 지어 추는 작품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럿이서 어울려 추는 장관을 통해서는 무대 전체로 관객의 시야를 넓히기 때문이다. 의상이나 도구, 음악 또는 몸짓으로 나눠진 감상의 기준은 이러한 '온춤' 지향의 장기적 전략을 통해 관람의 내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전통춤의 과제와 무용단이 숙성시켜 온 내적 고민의 여정은 이번 <온춤>을 통해 반환점을 돈 듯하다. 전통춤이 과거의 것이 아닌, 동시대와 소통하는 연속된 시간의 산물임을 입증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렇다면 무용단이 선보일 전통춤의 다음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을까. <온춤>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글. **송준호**
공연 저널리스트. 대학원에서 무용미학과 비평을 전공하고, 『주간한국』과 『한국일보』 『더뮤지컬』을 거쳤다. 공연예술의 다양한 변화를 주시하며 대학에서 춤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다.

6



7



8



9



6 <보듬고>
7 <너설풀이>
8 <바라거리>
9 <단심_합>

평범한 이야기, 큰 울림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삶과 죽음과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어딜 가나 우리 세상살이는 다 그러한 모습일 터.
미국의 극작가 손턴 와일드는 이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로 희곡을 써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 읍내>라는 작품이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읍내>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을 삶과 죽음, 그리고 제3자의 시선에서 총체적으로 관조해 보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참을 수 없는' 일상의 평범함을 화두로 잡기 시작한 것이다. 죽은 이들의 시점에서 삶을 담담하게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늘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1938년에 발표되어 85년이나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다. 국립극장에서 기획한 <우리 읍내>의 무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증명해 주었다.



한국적으로 감각한 무대

국립극장의 <우리 읍내>는 각색 공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감하면서도 정교하게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왔다. 총 3막으로 구성된 공연은 1막 '일상생활', 2막 '사랑과 결혼' 그리고 마지막 3막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원작과 동일한 구성이다. 그러나 1938년 미국의 뉴햄프셔 마을은 1980년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 읍내로 바뀌었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양주영 교수와 민규네, 현영이네를 배치했다. 그 밖에도 1980년대 시골 마을에서 만날 법한 평범하고도 다양한 인물의 일상이 풍경화처럼 혹은 스케치처럼 무대 위에 그려진다. 실제로 무대 중앙에는 마을의 풍경을 담은 거대한 LED 액자가 가로로 길게 걸려 있다. 장면에 따라 조금씩 그림을 달리하지만, 마냥 정겹고 따뜻한 시골 마을 풍경을 동화적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다. 사건이라면 민규(안창현 분)와 현영(박지영 분)의 사랑과 결혼, 출산 정도일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죽음도 나오지만, 이는 무대감독의 말을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메타 정보처럼 관객에게 제시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읍내>의 현재 시점을 구성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마을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공연의 시작과 끝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장식한다. 임도완 연출이 직접 곡을 붙였다고 한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시에 곡을 붙여 '수미쌍관' 형식으로 구조화하면서 공연의 의도와 목표를 뚜렷하게 부각한다. 사람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서 또한 '한국적 정서'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배우들은 마치 합창단처럼 바퀴 달린 덧마루 위에 올라 천천히 무대 앞으로 등장하거나 퇴장하면서 '귀천'을 노래한다. 배우들은 저마다 캐릭터를 유지한 채 개성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퀴 달린 네 개의 덧마루를 나란히 이어붙여서 만든 '수레 무대'를 배우 여러 명이 직접 밀고 당기며 움직인다. 이 '수레 무대'는 임도완이 전작 <스카팽>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수레 무대에 올라 주제곡을 부르며 공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형식도 동일하다. <스카팽>은 국립극단에서 수년째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수레를 이용해 이동 무대를 만들었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통에서 착안한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임도완은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 메소드를 끈질기게 추구해 온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를 전후해 인기를 얻은 즉흥 가면 희극이다. 그는 요 몇 년 사이 국립극단에서 제작한 몰리에르의 <스카팽>으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관객의 반응도 뜨거웠다.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연희, 즉 봉산탈춤과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접목하려는 시도로도 주목받았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그렇게 만들었다. 서양 고전을 우리 정서와 감각에 맞게 재창작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읍내>도 비슷한 맥락의 공연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1980년대 풍경과 일상이 손턴 와일드가 만들어낸 '우리 읍내'와 만나 한국적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굳이 재현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도 흥미롭다. 3막 공동묘지 장면에 등장하는 죽은 이들의 시선이 공연의 현재 시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막과 2막의 풍경은 죽은 이들의 시선에 포착된, 혹은 그들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과거의 어느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꿈처럼 아련하고 애달프다가도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이 지나간 우리 삶에 대한 기억이자 이미지가 아닐까. 무대감독(구본혁 분)과 신문 배달부(김우경 분)가 내레이터 내지 큐레이터처럼 현재 시점에서 무대 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해설해 준다. 무대감독은 심지어 신문 배달부 정효근이 스무 살 즈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는 정보마저 담담하게 이야기해 준다. 인생을 무대에 비유한 이가 셰익스피어였던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읍내>의 무대감독은 인간사의 굴레를 벗어나 있는 초월적 존재로도 볼 수 있다. 평양에서 월남한 의사이자 분단 현실을 되새기게 하는 인물인 김만석, 새마을 노래,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등 근현대사의 뼈아픈 기억과 사건들도 소환되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스케치처럼 훑고 지나갈 뿐이다.







감상성과 정서 과잉의 조절

탈재현적인 무대 연출에는 군더더기 없는 간결하고 명료한 대도구의 운용을 통한 장면 전환도 큰 역할을 했다. 배우들은 바퀴 달린 네 개의 덧마루와 A자형 사다리 두 개를 움직이며 자유자재로 공간을 창조한다. 배우 움직임을 중심에 두고 창작 활동을 해온 임도완 연출의 장점이 여기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런 형식을 통해 적어도 2막까지는 정서 과잉과 관객의 몰입을 적절히 차단해 가며 관조적 시선과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3막 공동묘지 장면은 아무래도 힘에 부친 느낌이다. 죽음과 한, 서러움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 정서다. 꿈이든 굿이든 드라마든, 망자와의 재회나 대화를 눈물 없이 담담히 지켜본다는 것이 우리 정서에서 가능한 일일까. 감상성과 정서 과잉을 조절하기 위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죽은 이들의 모습을 미동 없이 앉아 있는 마네킹처럼 연출한 것, 감정과 정서를 배제한 채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대사를 발화하게 한 것이 그런 노력이다. 그러나 출산 중 죽은 현영이 흰색 원피스를 입은 망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어 남편 민규가 상복에 두건을 쓴 모습으로 나타나 현영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에서 긴장감은 와해된다. 민규는 엄마 장정실(정은영 분)의 무덤 앞에 엎드려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빌어준다. 현영은 단 하루만 현세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열두 살 생일을 맞아 행복했던 1981년의 어느 날로 돌아간다. 힘겹게 유지해 오던 감정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감상성은 관조적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생에 대한 담담한 시선을 허락하지 않는다. 공연의 방향도 다소 상투적으로 이끈다. 그래서 아쉬움이 컸던 장면이다.

최근 우리 무대에서 수준 높은 무장애 공연을 자주 접한다. 이번 공연도 그러했다. 장애를 애써 부각하지 않으며,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공연 문법으로 녹여냈다. 농인과 청인 배우들이 수어로 대사를 소화하는 장면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수어의 정적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낼 때도 있다. 3막에서 현영이 죽은 엄마와 만나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이 만들어낸 정서적 소구력은 대단히 컸다.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 무장애 공연을 더한 <우리 읍내>는 그래서 더 다양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담아낸 공연이었다.

글. 이성곤
연극평론가. 일본 근현대연극을 전공했으며 현재 재일코리안 극단 활동을 연구하고 있다.

예술하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

로봇은 지휘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6월 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Ⅳ <부재不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지휘에 도전해 공연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로봇의 관현악단 지휘는 해외에선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내에선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공연을 앞두고 언론의 취재 경쟁이 펼쳐지는가 하면 공연 당일 객석에 빈자리가 드물 정도였다. 최근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예술 분야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활약하며 기존의 정의와 가치에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시도된 <부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흥미로웠지만 아쉬움도 많았다.

<부재>의 지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1] 로봇 '에버6'와 최수열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나누어 맡았다. 에버6의 경우 상반신만 인간처럼 구현된 고정형이라 이동은 안 된다. 그러나 팔과 목, 어깨에 달린 20여 개의 모터 덕분에 상체 움직임은 유연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지휘자 정예지의 동작을 모션 캡처(몸에 센서를 달아 인체 움직임을 컴퓨터로 전화하는 과정)한 뒤 에버6에 맞춰 적용한 덕분에 지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시작할 때는 오퍼레이터가 원격조종을 해야 하지만 연주에 들어가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확한 박자에 맞춰 지휘를 보여주는 게 에버6의 장기다.

이날 오케스트라 피트를 통해 에버6가 등장하자 객석에선 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실리콘 재질의 인공 피부와 가발을 쓰고 인간의 이목구비를 똑같이 구현한 최근 안드로이드 로봇의 외양 대신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을 고스란히 노출시킨 덕분에 관객은 로봇에게 호기심과 친근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관객이 언캐니 밸리[2] 를 느끼기엔 에버6는 로봇스러움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에버6에게 인간과 훨씬 가까운 외모의 쌍둥이 로봇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둘을 함께 등장시켜 관객의 반응을 비교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다.



1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모습에 가까우면서 인간의 행동을 하는 기계를 뜻하고,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기계를 가리킨다. 안드로이드가 휴머노이드보다 인간에 가까운 개념이다.

2 불쾌한 골짜기를 의미하는 'Uncanny Valley'는 인간이 로봇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해당 존재가 인간과 많이 닮아 있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에버6가 지휘한 곡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기 레퍼토리인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 소리'. 몽골 작곡가의 작품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한 두 곡은 조바꿈 없이 빠르고 일정한 박자로 연주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에버6가 짜인 프로그램대로 지휘하는 만큼 정확한 동작 수행이라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곡을 고른 것이다. 또 손일훈 작곡가의 신곡 '음악적 유희 시리즈-감感'(이하 '감')을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지휘했다. '감'은 악보 없이 손일훈 작곡가가 정리한 규칙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곡이다. 에버6가 규칙대로 박자를 세는 동안, 최수열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지시했다. 사실 에버6가 없으면 최수열 지휘자는 박자가 계속 바뀌는 패턴을 30번 반복하는 이 곡을 지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연은 로봇이 아직 인간 지휘자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최수열 지휘자가 혼자 지휘한 '침향무'와 '영원한 왕국' 연주가 그러했다. 가야금 명인 이지영이 협연한 '침향무'의 경우 지휘자가 협연자와 관현악단 사이에서 호흡을 맞추며 이끌어야 하는데, 로봇의 완벽한 박자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의 경우 악상이 이완됐다가 다시 급박하게 변화하기를 반복하는 난곡인 만큼 지금의 에버6로는 제대로 지휘하기 어렵다. 최수열 지휘자는 로봇의 완벽한 박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을 보여줬다.

에버6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한 지휘자의 역할은 바로 음악의 해석자라는 것이다. 19세기에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과 같은 전문 지휘자가 등장했는데, 자신의 해석에 맞게 음색과 박자 등을 조절한다. 동일한 오케스트라가 똑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지휘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 것은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 만큼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사실 현재의 기술로는 로봇이 음악을 들으며 단원과 교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공연에 나선 에버6는 지휘자라기보다는 지휘 동작을 하는 퍼포머에 가깝다. 일각에서 '거대한 메트로놈'이라며 평가 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공연을 단순한 이벤트로 폄하하기는 어렵다. 로봇과 융합된 새로운 예술 활동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른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2009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 공연에서 판소리를 하던 에버3의 어색한 모습과 비교할 때 이번 에버6의 지휘는 상당히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해외 로봇 공연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1927년 미국에서 등장한 최초의 로봇 텔레복스Televox를 비롯해 초창기 로봇들은 볼거리로 사용됐다. 이후 1960년대 로봇으로 대표되는 자동화 기계의 확산과 함께 예술계에서도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술계에서 로봇의 철학적·미학적·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설치 작업과 퍼포먼스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연계에서는 21세기가 가까워져서야 로봇을 무대에 등장시켰다. 공연의 경우 로봇이 신체적 움직임을 동반하며 인간(배우 혹은 관객)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미술 장르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로봇 공연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 시도를 통해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곳은 로봇 강국 일본이다.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와 로봇 전문가 이시구로 히로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로봇 연극 프로젝트'는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또는 안드로이드 로봇과 인간이 함께 등장하는 8편의 로봇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로봇과 인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성찰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로봇공학 주도 연구는 활발하지만 예술 생산자로서 로봇을 상정한 공연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로봇 지휘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최근 흥미로운 시도에 나선 바 있다. 바로 AI 탑재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노래까지 한 '알터Alter2'의 오페라 <Scary Beauty>(2018)와 알터3의 오페라 <Super Angels>(2021) 공연이다. 일본의 유명 작곡가 시부야 게이치로와 로봇 전문가 이케가미 다카시가 진행해 온 이 프로젝트는 AI를 넘어 생명의 본질에 다가서는 알고리즘을 창조한다는 'ALife(인공생명)'를 지향하고 있다. 알터2와 알터3는 인간 뇌의 신경회로를 모방한 신경망을 통해 스스로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오케스트라 지휘에서도 음악 전체의 템포나 강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배우와 동등하게 연기한 연극 <사요나라>의 한 장면. 일본 극작가 겸 연출가 하라타 오리자와 로봇 전문가 이시구로 히로시는 2008년부터 '로봇 연극 프로젝트'를 통해 <사요나라>를 비롯한 작품 8편을 선보였다.

로봇 지휘의 시초는 2008년 일본 혼다의 로봇 아시모Asimo가 디트로이트 심포니를 지휘한 것이다. 하지만 한 손으로만 위아래를 오가는 제한적 움직임으로 뮤지컬 넘버 1곡만 지휘했다는 점에서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로봇 지휘는 2017년 스위스 ABB의 로봇 유미Yumi가 이탈리아 루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협연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유미는 루카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 안드레아 콜롬비니의 지휘 동작을 모방해 프로그램된 대로 음악을 이끌어갔고, 이날 연주한 18곡 가운데 3곡의 지휘를 책임졌다. 이번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부재>와 비슷한 콘셉트였다.

유미나 에버6와 비교할 때 알터2와 알터3는 낮은 수준이지만 인간만의 것으로 여겨지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여줬다. 이는 AI 탑재 로봇 지휘자가 언젠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음악의 표현법을 개발하거나 형식을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앞으로도 로봇은 계속 진화할 것이고, AI와 결합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로봇 지휘자를 비롯해 예술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박물관가게는
이십사절기에 가치를 둡니다.
Museum Store
Values the 24 Jeolgi Seasons.



안목의 성장

INSIGHT

백정
The Butcher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물론 공연 전에 아내와 도수 40%의 안동 소주를 마신 탓도 있을 것이다. 공연은 활짝 웃는 모습의 탈을 쓴 백정이 소(물론 소의 복장을 한 배우들)의 머리를 두드리며 불알을 자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고서 백정은 불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남성 관객에게 물어본다. “불알 사실 분 계십니까? 혹시 잃어버리신 분 계시오? 여기 신선한 고환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심오하고도 풍자적 장면을 술에 취한 채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미국 중서부 소도시의 정육점 주인이자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백정과 똑같은 웃음을 지니고 계셨던 나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The first time I saw the Andong Hahoe Mask Dance performance, I was mesmerized. Of course, the bottle of 40%ABV Andong soju my wife and I shared before the performance certainly helped. The performance opens with a butcher wearing a wide smiling wooden mask knocking a beef cattle (actors in a cow costume, of course) in the head and cutting off its balls.

The butcher then walks around asking men in the crowd if anyone needs any balls. “Does anyone need to buy some testicles? Maybe yours are missing? I have some fresh testicles right here!” As I drunkenly stared at this deeply poetic and ironically humorous scene unfolding before me, I immediately thought of my grandfather, a butcher in my small midwestern town of America, who smiled exactly like this butcher in the Hahoe Mask Dance.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동네 정육점인 번로커Berne Locker로 우리 반 아이들을 초대하셨다.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정육점에서 우리 가족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 판매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을 정육점에 초대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큰 소 사체를 가리키며 유쾌하게 각 부위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걸 처음으로 보는 동급생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친절하신 분이었지만, 때로 경계를 허무는 것도 좋아하셨다. 할아버지께서 신선한 소피가 가득 담긴 컵을 들고 안쪽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몇몇 친구가 거북해하며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피를 가져다가 마실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안동에서 소주를 마시고 탈춤을 관람하던 중 피가 담긴 잔을 돌리며 활짝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탈에 할아버지의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는 것 같았다. 탈에 새겨진 주름은 수십 년 동안 웃으며 사신 할아버지의 피부에 새겨진 주름과 닮았다. 배우가 관중을 올려다볼 때 탈의 턱에 달린 작은 끈으로 인해 더 큰 미소가 지어졌는데, 나는 문득 할아버지도 턱에 당신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더 환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식이 내 삶과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정육점과 같은 단순한 것이 한 개인, 가족, 도시, 심지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다른 아이들, 나아가 성인을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여기저기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았다. 뉴욕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고기와 치즈를 판매하는 장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평생의 반려자인 커트니Courtney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음식에 대한 그녀의 열린 마음과 예리한 입맛에 있다. 하지만 비로소 한국에 와서야 진정으로 내 자리를 찾았다.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고향보다 한국 문화가 더 편안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내가 한국 문화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오픈된 정육점 카운터가 있는 고깃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고기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지 상상했다.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my grandfather invited my class on a school trip to the Berne Locker, my family's small local butcher shop. Growing up, I spent most of my afternoons and weekends here, watching my family serve meat to the people of the town. However, I had no idea just how unique and special growing up around this place truly was until my class was invited to experience it for themselves.

As my grandfather and his brother happily explained where meat and steaks come from, pointing to the large cattle carcasses hanging from the ceilings, I could feel discomfort growing in my inexperienced classmates. While my grandfather was always kind and smiling, he also loved to push boundaries now and then. And when he came out of the back room with a cup full of fresh cow blood, I noticed a few classmates start to squirm with discomfort. He began to offer it to my young classmates, asking if anyone wanted to take some of the blood and drink it.

My grandfather's big wide grin while passing around the cup of blood is what shot through my soju addled brain while watching the mask dance in Andong. It felt like my grandfather's very own smile was immortalized in this wooden mask. The wrinkles carved into the face mimicked my grandfather's own wrinkles carved into his skin from decades of smiling. A small string attached to the mask's jaw would widen the mask's smile as the actor looked up at the crowd, and I suddenly wondered if my grandfather also had some invisible string in his jaw that widened his mischievous smile, way back then, when all my classmates turned away with fright.

As I got older, I came to realize that food was a profound part of my life and identity. However, it was rare to find other children, and later adults, who understood just how important something as simple as a butcher can be for individuals, families, cities, and even countries. Of course, I found others like me here and there. While studying for my master's degree in New York, I took a part time job at an artisanal meat and cheese shop, just to be close to others like me. I married my lifelong partner, Courtney, partly because of her open mind and sharp palate when it comes to food. But it wasn't until I moved to Korea that I truly found my place.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 대전 바로 외곽에는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 그 식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냉동 상태가 아닌 농가에서 키운 신선하고 거대한 옥천 흑돼지가 눈에 들어온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고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신선한 삼겹살을 썰어준다. 하지만 이 고깃집 주인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웃지 않는다. 그는 끈을 잃어버린 것일까?

이런 식당을 방문하면, 나는 바로 삼촌과 할아버지가 고기를 썰고 뼈를 바르는 것이 일상이던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고객의 눈에 띄지 않는 안쪽 방에서 작업했다. 내 고향인 인디애나의 문화와 비교해 한국은 음식의 원산지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 같다. 실제로 고기의 품종과 식재료의 원산지를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앞에서 저녁 식사 재료를 잘라주거나, 수조에서 꺼낸 신선한 활어를 죽여 내장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 바로 몸부림을 칠 텐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권장하며 품질과 신뢰의 표시로 생각한다.

내가 유튜브 채널 '오스틴! 주는 대로 먹는다(Eating What is Given)'를 시작한 주된 이유도 바로 한국의 이러한 특징에 있다. 이 멋진 문화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비록 보여드리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왠지 모르게 고깃집에 가서 구이용 고기를 썰고 있는 정육점 주인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기운이 느껴지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While moving to Korea was challenging, I slowly started to realize that, in some ways, I felt more at home within this culture than my own back home. My most tangible memory of realizing I had a place in this culture was when visiting a gogi-jip (meat house, 고기집) that had an open butcher counter as you walked in the door. I pictured my grandfather's smiling face, imagining what he might have thought or said about this meat wonderland.

Just outside of Daejeon, my home in Korea, there is a popular gogi-jip where a huge side of unfrozen and fresh farm-raised Okcheon black pig is the first sight you see when you walk in the door. The owner of the restaurant slices pork belly fresh to order for all the patrons entering to witness with their own eyes. The owner here never smiles like my grandfather did though. I wonder if he lost his strings?

When I visit restaurants like this, I immediately feel like I am right back at home, watching my uncles and grandfather slice up meat and break down carcasses. But we always did the processing in the back room, away from the prying eyes of customers. Compared to my home culture in Indiana, I feel that Korea is more open about where their food comes from. In fact, breeds of animals and origins of ingredients are seen as important to the taste and quality of the meat. While many of the people in my hometown would immediately squirm at the thought of seeing pieces of their dinner being cut up before them or a live fish being killed and gutted fresh from the tank, in Korea, this practice is encouraged and a sign of quality and trust.

This aspect of Korea is a major reason why I started my YouTube channel, Eating What is Given, so I could share this amazing culture with my family. Even though my grandfather passed away before I had the chance to share it with him, for some reason, I feel his spirit and can hear his laugh every time I visit the gogi-jip and watch butchers slicing up meat for the grill.

In the Hahoe Mask Dance, after the butcher offers the crowd the testicles, he then cuts out the heart of the cattle. Again, he walks around the crowd, offering a heart to all the patrons.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백정은 관객에게 고환을 건넨 뒤 소의 심장을 도려낸다. 다시 그는 관객 사이를 돌아다니며 심장을 판다. "여기 심장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분명 심장을 잃어버리고 필요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 심장을 사서 넣으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 무엇보다 그 심장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외치지 않았다. 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나에게 피가 담긴 잔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신선한 소피가 담긴 컵을 들고 한 번에 꿀꺽 마셨고, 붉게 물든 이빨이 드러나게 미소를 지으셨다. 이 모습에 친구들은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났다. 마치 하회탈의 턱에 있는 끈이 당겨지듯 할아버지는 더 환하게 미소 지으셨다.

"Who here has lost their heart? Surely, many of you need a heart because you've lost yours! Buy this one and put it in!" I'm not sure why, but I wanted to cry out that I needed that heart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But I didn't. Just like during my class field trip, when my grandfather offered the cup of blood to me, I wanted to take it and drink it down. But I didn't.

With a big laugh, my grandfather took the cup of fresh cow blood and drank it down in one gulp, smiling with big, red-stained teeth as my classmates went hysterical with shock. His smile widened, like the strings being pulled on the jaw of a wooden mask.

글·사진. **오스틴 기븐스**
카이스트 어학센터 교수

Writer·Image. **Austin Givens**
Professor at KAIST Language Center

Translator. **Moony Choi**

예술과 일상, 그 경계의 공간

**안국역과 북촌을 잇는 감고당길, 그 언저리에 담장도 대문도 없는 수상한 박물관이 있다.
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허브이자 공예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아카이브,
동시에 누구나 쉬어가는 열린 커뮤니티로 기능하는 곳.
서울공예박물관은 가장 동시대적인 방식으로 공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간의 틈을 발견하는 공간

낡아서 더 귀한 것, 오래되어 더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에게 종로만큼 흥미로운 동네가 또 있을까. 그중에서도 관광객과 현지인, 옛 건물과 최신식 빌딩이 뒤섞여 숱한 이야기를 빚어내는 서울 한복판에 단어 그대로 보물 같은 장소가 있다. 슬렁슬렁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자연스레 스며들고 흘러드는 곳.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공예를 잘 몰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는 재미가 차고 넘치는 곳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7년간의 준비 끝에 2021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공예 전문 박물관이다. 그만큼 터를 잡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자리는 일찍이 명당으로 소문난 곳으로 세종의 아들 영응대군의 집터였다. 한때는 조선 왕실 가족의 제택第宅 혹은 가례를 치르던 '안동별궁'이 자리했고, 이후 1944년부터 70년간 여성 교육의 요람인 풍문여고가 터의 무늬를 가꿔왔다. 더군다나 종로구 일대는 수공예품을 제작해 관에 납품하던 조선의 장인 '경공장'들이 활동하던 곳이라 하니, 공예박물관을 건립하기에 이만한 장소도 없을 듯하다.

건물을 올리는 데도 고민이 뒤따랐다. 별궁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는 동안 켜켜이 쌓인 역사적 가치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은 옛 풍문여교 교사校舍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보수·보강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안내동과 공예별당(한옥)을 새롭게 지어 마침내 일곱 채의 건물과 공예마당으로 구성된 서울공예박물관이 탄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는 공간의 특성이다. 여러 채의 건물로 이뤄진 담장 없는 공간이다 보니 출입구만 다섯 개다. 약속된 동선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박물관과 다른 만큼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해도, 도서실에서 책을 읽어도, 아니면 그저 머물다 가도 괜찮은 실용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역사가 담긴 고즈넉한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 여기에 사계절 달라지는 박물관 풍경을 보는 재미는 덤이다. 봄이면 공예마당 한가득 매화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이면 공예별당 인근 빈터에 해바라기와 절굿대가 만개한다. 40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면 고목 아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뉘어놓고 싶어진다.

모두의 공예, 모두의 박물관

2만 3천여 점의 수집품과 아카이브를 소장한 연구 기관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공예박물관으로서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란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되는지, 또 공예가 지닌 가치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보여주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지나 근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예 발전의 역사를 다루는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그리고 직물공예 컬렉션으로 구성한 <자수, 꽃이 피다>,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는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설전시다. 물론 시간 여유가 된다면 여섯 개의 상설전시관을 모두 둘러봐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전가직물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전시3동을 먼저 관람하기를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평생 자수와 보자기를 수집했던 사전가絲田家 허동화, 아향雅香 박영숙 부부가 기증한 5천여 점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화려한 색감과 입체감을 자랑하는 '자수 화조도 병풍'와 그림과 자수가 함께 어우러진 '자수 묵죽도 병풍'은 물론, 궁중에서 사용된 화려한 보자기부터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준 조각보까지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 중이다. 또한 개관 기념으로 선보였던 '자수 사계분경도'는 영상으로, '현우경 표지'는 재현품으로 대체되어 색다른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일상을 엮은 자수·보자기 공예품을 보고,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작품을 보여주는 박물관의 방식이다. 관찰력이 조금 있다면 눈치챘겠지만, 액자 표면의 빛 반사나 굴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수 실의 결과 반짝임을 낱낱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한 덕분이다. 3층 전시관 역시 보자기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유리 쇼케이스를 특별 제작했다. 앞으로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조금씩 품목을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주기적으로 찾아보아도 좋겠다.

수집품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상설전시와 달리 특별기획전은 국내외 동시대 공예를 다룬다. 근현대 나전 장인들의 도안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나전장의 도안실>전은 아쉽게도 7월부로 종료되었지만, 채화·분청·금박 분야에서 다양한 조형감으로 작업하고 있는 황수로, 궁중채화서울랩, 이강효, 김혜련, 장연순, 김기호의 작품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예 다이얼로그> 전이 9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다루는 매체와 작업 방식이 모두 다르지만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세대를 관통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공예가의 작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의 슬로건은 '모두의 공예, 모두의 박물관'이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관람을 돕는 안내 촉지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휠체어 전용 책상은 물론 공예를 체험하고 창작해 볼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 '공예마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실', 직물공예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보이는 수장고', 다목적 문화공간 '공예도서실' 등의 콘텐츠에 장애·나이·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공예를 경험하고 즐기기를 바라는 박물관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일 언제라도 서울공예박물관을 찾게 된다면, 곳곳에 숨은 박물관의 시대정신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취재. **편집부**
사진. **김성재 SSSAUNA STUDIO**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흑인 음악가의 위대한 스승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버드 등 미국 명문대 입학 전형에서 유색인종을 위해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9명이 참여, 6명의 찬성표가 이끈 판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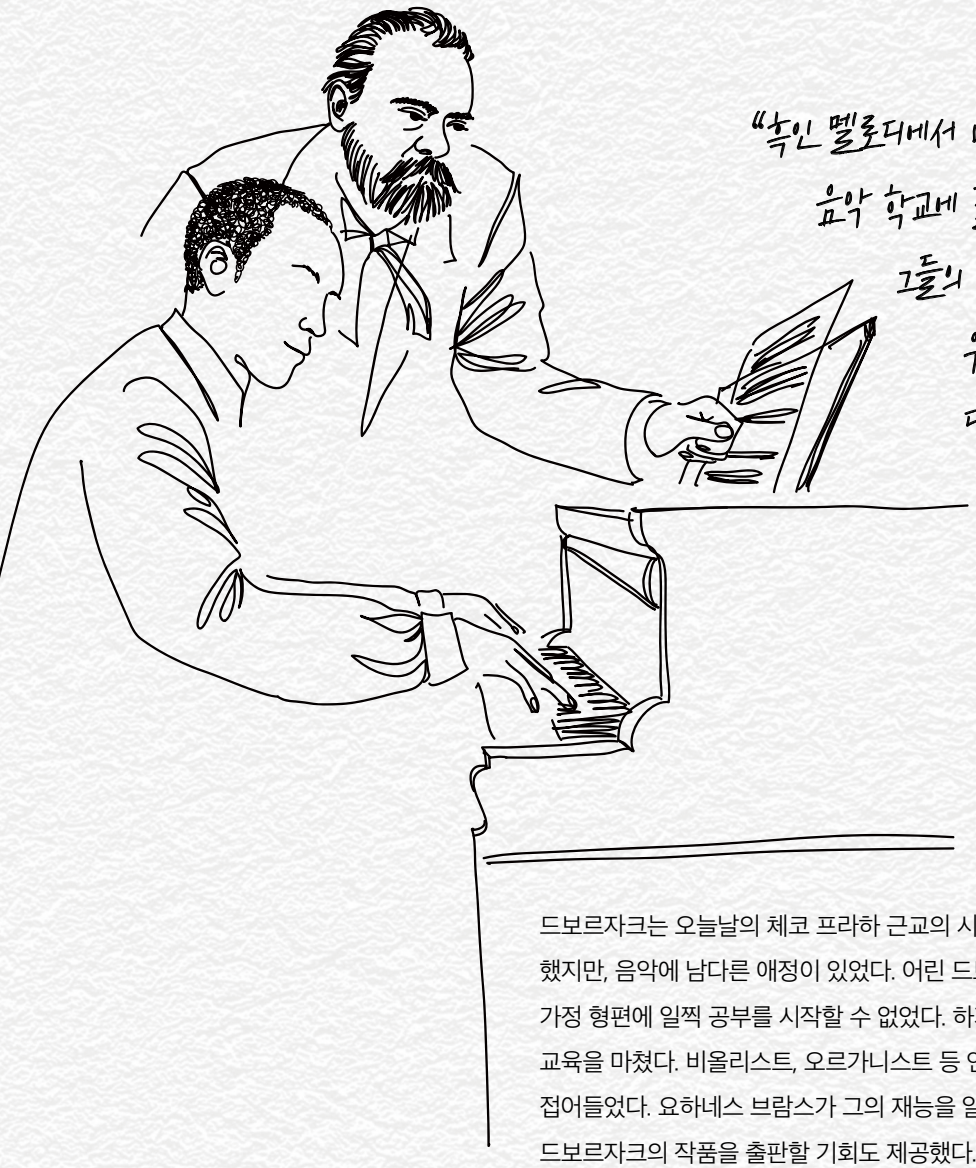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이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다양성이 교육의 목표다. 모든 학생은 인종이 아닌 한 사람의 학생으로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종 특별 가산점'을 받았던 입학생이 인종을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과 미국 정부 측은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입학생이 흑인 입학생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원하는 것은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일 테다. 체코의 국민 음악가로 추앙받는 안토닌 드보르자크Antonin Dvorak, 1841~1904. 그는 미국에서 살던 아프리카계 흑인 학생에게 차별 없이 서양음악을 배울 수 있게 도운 스승으로 꼽힌다. 체코 및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던 그는 1892년부터 약 3년간 미국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 시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유색인종의 음악원 입학 허가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상당한 화젯거리였다.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 흑인에 대한 반감이 지배적이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쇼팽과 베토벤을 연주하는 흑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흔치 않았다. 드보르자크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절보다 대략 60년이 지난 후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을 시작한 소프라노 제시 노먼은 "젊은 시절에는 피부색에 따라 오페라 배역을 받아야 했다."라는 회고담을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비단 클래식 음악계만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드보르자크가 유색인종 입학을 허가하면서 주장한 것은 피부색이 음악을 배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1893년 5월 21일 자 『뉴욕 헤럴드』와 인터뷰하던 중 "미국의 흑인 멜로디에서 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음악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우울하고 엄숙하며 종교적이며 대담하고 명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백인과 흑인의 평등한 분리가 '짐 크로 법'으로 보장되던 20세기 초의 미국에서 수많은 흑인이자 예비 음악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가 흑인 학생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하나는 가난하던 어린 시절 어렵게 음악 공부를 이어간 자신의 지난날을 반추한 데 있다. 흑인 학생을 지도하며 자연스레 그들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대표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와 현악 4중주 제12번 '아메리카'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는 명작이 음악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의 깊은 신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흑인 멜로디에서 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음악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음악은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우울하고 엄숙하며 종교적이며
대담하고 명랑하다."

1893년 5월 21일 자 『뉴욕 헤럴드』 지에서 진행한
드보르자크 인터뷰 중

드보르자크는 오늘날의 체코 프라하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도축업을 했지만, 음악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어린 드보르자크는 음악에 재능을 나타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일찍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성실하게 음악 교육을 마쳤다. 비올리스트, 오르가니스트 등 연주 활동으로 돈을 벌다가 결국 작곡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요하네스 브람스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당시 유럽에서 유명하던 짐 로크 출판사에서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출판할 기회도 제공했다. 마침 유럽의 악보 인쇄술 발달로 그의 작품은 대량 인쇄돼 유럽 곳곳에서 팔렸다. 이렇게 그는 인기를 얻었다. 형편상 남들보다 늦게 음악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 그는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잠들었다. 동시에 피부색으로 음악 공부의 기회를 차별하지 않은, 흑인 음악가의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현재 그는 체코 프라하에 잠들어 있다. 그의 묘비에는 "흑인의 특별한 눈물이 드보르자크를 추모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인종차별의 역사가 깊다. 20세기 여성 음악가의 역사와 비교해 본다면 흑인 연주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한 편이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이나 기타 여러 연주 단체의 단원 중 아시아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여성 지휘자를 정식 지휘자로 계약한 연주 단체의 비율과 엇비슷하다. 그런데도 고무적인 건, 매년 우리나라의 연주자가 세계 여러 교향악단이나 오페라단 등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것.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앞으로 어느 시대이든 어느 세상에서든 피부색이든 성별이든 어떤 이유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길 희망한다.

※ 참고 문헌
드보르자크 미국 유산 사업회(https://www.dvoraknyc.org)

글. **정은주**
음악 칼럼니스트. 서양 음악가들의 음악 외(外)적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하며 산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사전』, 『발칙한 예술가들』(추명희·정은주 공저), 『나를 위한 예술가의 인생 수업』을 썼다. 현재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월간지, 『월간 조선』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부산mbc <안희성의 가정 음악실>에 출연하고 있다.

일러스트. **romanticize**



극장 속으로



INTO THEATER

현재와 미래의 창극적 만남

성인 예술가와 청소년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창극의 내일. 오민아·송재영 강사는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현재와 미래의 창극적인 만남은 환호와 '팬심'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의 전통예술을 긍정할 수 있도록 방증하는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다.

| 커진 규모, 벅찬 감동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민아 작년 심화반에 이어 올해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서도 판소리 강사를 담당한 국립창극단원 오민아입니다. 1998년 입단 이후 몸담고 있는 창극을 청소년 예술가에게 가르칠 기회가 흔치 않은데, 때마침 기회가 열려 기쁜 마음으로 강사진에 합류했어요.

송재영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서 연극놀이 교육을 맡고 있는 송재영 강사입니다.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드는 극단 '조각바람프로젝트'의 동인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합류해 청소년 예술가와 함께 창극 무대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Q.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수료공연을 끝으로 올해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송재영 생각보다 많은 수강생이 통합반에 참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덕분에 청소년 예술가의 예술적 면모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숙선 선생님이 수업 중 "미래의 창극을 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수료공연을 통해 그 모습을 유감없이 선보였다고 자부합니다.

오민아 사실 수업할 때는 청소년 예술가를 가르치는 게 상당히 벅찼어요. 짧은 시간 동안 판소리의 기본인 소리와 장단을 가르치는 동시에 '심청가'의 수많은 곡목과 눈대목을 간추려 교육해야 했으니까요. 판소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도 '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료공연에서 배운 것을 놀라울 정도로 잘 풀어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찼답니다.



송재영 강사

Q.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뉘던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올해에는 통합반으로 규모를 키워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요.

송재영 두 반이 통합되면서 수강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면 강사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여림 연출가를 포함한 강사진이 이러한 생각을 예술교육팀에 전달했고, 그 결과 연극놀이 강사 1명 충원, 움직임 강사 전 수업 참여 등의 변화가 있었죠. 덕분에 여느 때와 같이 청소년 예술가가 예술적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오민아 창극의 토대가 되는 판소리는 모두에게 두루 가르쳐야 했지만, 움직임이 적어서 연극놀이에 비해 신체적으로 덜 힘들었죠. 특히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여러 번 참가한 수강생들이 앞장서서 수업에 따라와 주고 분위기를 잡아줘서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재수강생이 더 많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였죠. 거기다 수강생 규모가 커진 만큼 소리의 풍성함이 한결 커졌다는 점도 통합반 운영의 장점이었습니다.

청소년 예술가로 거듭난 아이들

Q. 강사진이 수강생 이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셨다고 들었어요.

송재영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는 총 10차시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커리큘럼 없이 출발합니다. 올해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관통하는 대주제와 청소년 예술가를 대하는 자세 정도만 공유한 채 시작하죠. 청소년 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이들의 이야기를 수료공연 대본에 속속 녹여내기 위함입니다. 강사진은 매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의 특성과 개개인의 성향, 수업 상황 등을 두루 파악해 매주 회의를 열고 다음 차시에 진행할 수업안을 매번 새롭게 구성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예술가의 의견을 그러모아 수료공연 대본에 투영하죠. 요컨대 강사진은 올해 참가한 청소년 예술가에게 꼭 맞춘 수업과 수료공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Q. 수강생을 '아이들'이 아닌 '청소년 예술가'라고 부르시는 게 인상 깊네요.

송재영 수강생의 의견을 수업과 수료공연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도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강생을 통칭할 때 '청소년 예술가 여러분'이라고 불렀죠. 아이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예술가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은 실제로 '예술가 모드'로 변신하고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일례로 6월 11일에 열린 수료공연 <청이가 돌아왔다>의 무대 양옆에는 단 한 명의 강사진도 배치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나오길 반복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빈틈없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평범한 아이가 말 그대로 청소년 예술가로 거듭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결국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는 '성인 예술가와 청소년 예술가의 합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민아 강사

Q. 각자 맡은 분야를 가르치는 데 특별히 신경 쓴 교육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오민아 판소리의 기초를 전수하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소리와 장단 등 판소리의 핵심 요소를 잘 모르는 청소년 예술가가 상당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들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특히 기교와 감정을 웅숭깊게 표현해야 하는 느린 장단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 전환이 빠르다 보니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따라와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송재영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공연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연극적 기술과 무대의 환희만 남게 될 수 있는데, 청소년 예술가가 수료공연으로 향하는 매 수업에서도 무대 못지않은 즐거움과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정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도록 수강생을 인도했습니다.

국립극장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 감각

Q. 청소년 예술가와의 여정 속에서 뇌리에 박힌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민아 청소년 예술가 모두가 열정적인 태도로 매 수업에 임했는데요. 특히 두 수강생이 기억에 남네요.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여러 번 참여하며 중학교 2학년이 된 한 청소년 예술가는 매 수업 말미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1년만 더 하면 안 돼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없으니 이런 말로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싶어 뿌듯하면서도 못내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올해 처음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참가한 초등학교 4학년생 한 명은 항상 똘망똘망한 눈으로 수업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더군요. 청소년 예술가를 가르치면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 청소년 예술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송재영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에 여러 번 참가하는 청소년 예술가가 늘어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사실 처음에는 청소년 예술가가 여러 번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무대에 선 그 순간의 환호와 박수에 도취돼 과정을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저의 우려와 달리 청소년 예술가들은 이전 무대의 경험과 1년간의 삶을 토대로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변화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강사로서 큰 기쁨이었어요. 강사진도 여러 번 참가하는 청소년 예술가를 위해 매년 새로운 세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꾀했죠. 청소년 예술가들이 성장한 만큼 이들을 가르치는 성인 예술가도 발전하는 셈이에요.



Q. 두 분이 생각하시는 올해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송재영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점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청소년 예술가들이 늘어난 만큼 수업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 수료공연에서 이들이 내는 목소리, 관객의 호응 등이 모두 꽉꽉 채워져서 강사진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커다란 감동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소리와 연극, 움직임 수업을 하나로 모은 통합수업을 두 번 진행했는데요. 이때의 호응도 좋아서 앞으로 통합수업의 횟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민아 이번 수료공연에 관객이 많이 오셨는데요. "창극 재미있네"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더군요. 관객이 청소년 예술가를 통해 창극과 판소리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청소년 예술가의 미래와 전통예술의 내일을 모두 밝히는 등대 구실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숙선 창극아카데미>로 시작해 현재의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로 이제는 많은 청소년 예술가가 선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는 게 무척 뜻깊고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지금처럼 창극과 대중을 하나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Q.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월간 국립극장' 독자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민아 2013년 시작된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어느새 10주년을 넘어섰습니다. 그간 수백 명의 청소년 예술가가 이 프로그램을 거치며 예술 감각과 전통예술에 대한 사랑을 무럭무럭 키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 예술가가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재영 창극이라는 장르를 토대로 판소리·연극놀이·움직임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가 한데 모여 청소년 예술가를 가르치고, 나아가 국립극장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창극아카데미>가 유일합니다. 국립극장이기에 <청소년 창극아카데미>와 같은 양질의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예술교육팀에서도 전폭적으로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청소년 예술가였다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웃음) 여러분도 현재의 예술가와 미래의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 창극아카데미>를 통해 예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글. 강진우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 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한국적 무용극의 탄생

음력 7월 7일 밤이 되면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까워진다. 칠석이라고도 하는 이날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진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까마귀와 까치들이 놓아준 오작교烏鵲橋에서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는 설화가 전해 온다.



1973년 국립극장준공기념공연 <별의 전설> 사진

우리에게 친숙한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는 국립무용단의 주요 작품 소재로 등장한다. 1973년 국립무용단이 국립극장 준공 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린 <별의 전설>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무용극으로 한국적 무용극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다.

국립극장이 1973년 명동예술극장에서 현재의 장충동으로 이전 개관하면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아울렀던 국립무용단은 한국무용 부문의 국립무용단과 발레 부문의 국립발레단으로 분리된다. 한국무용 전공으로 구성된 국립무용단이 새롭게 조직되면서 송범宋范, 1926~2007 단장이 취임했고,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 준공 기념 공연으로 <별의 전설>을 무대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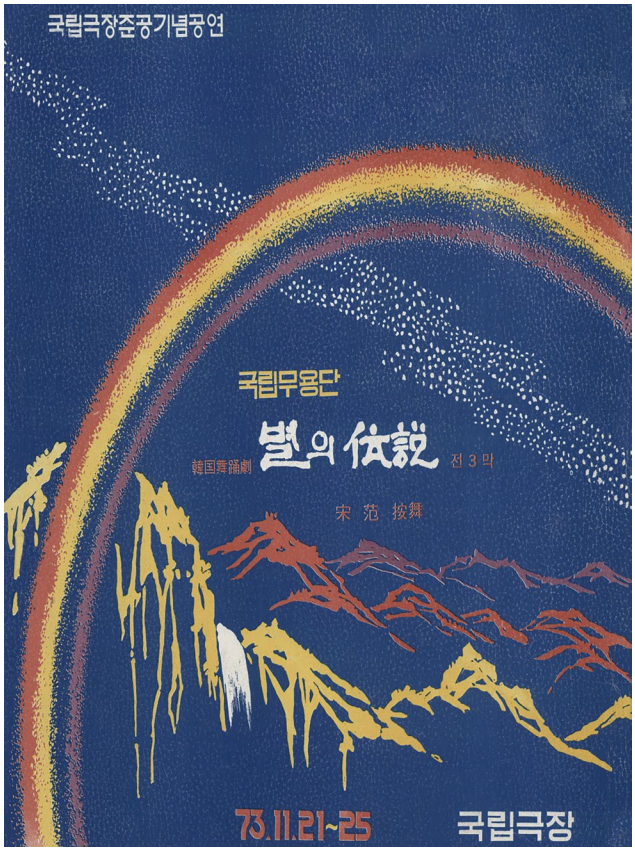
<별의 전설>은 그동안 한국무용계의 숙원이던 본격적인 한국적 무용극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항석 원작, 안제승 대본, 송범 안무로 제작됐으며, 견우 역에는 송범·은방초·정재만이 출연했고, 직녀 역에는 김문숙·최혜숙·박순자가 출연했다. 총 3막으로 구성됐는데 제1막 지상편에서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 제2막 산제날에서는 견우와 직녀의 지상에서의 삶, 제3막 천상편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공연 프로그램북에 실린 송범의 '안무가의 말'에 따르면 <별의 전설>은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소재로서 오랫동안 구상해 온 작품이라 소개하며, '견우와 직녀'의 전설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공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외에 소개하기에도 알맞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우리 전통무용의 흥겹고 아름다운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극적 표현을 살리는 데 치중하는 한편, 해외 공연을 염두에 두고 음악이나 안무에 한국적인 색채를 원형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 당시 한국적 무용극을 완성하려는 목표 의식과 전통의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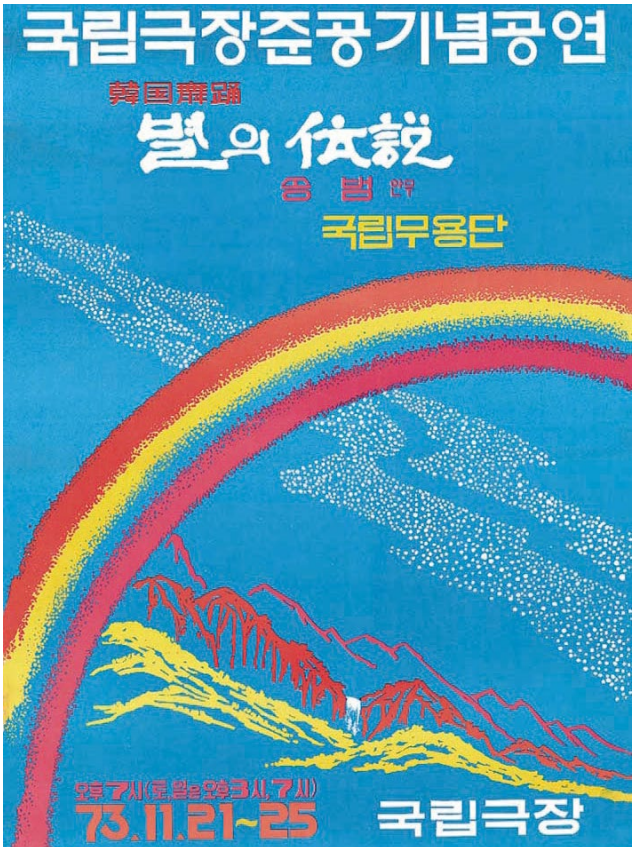
<별의 전설>은 국립극장의 새로운 무대 규모에 걸맞은 대작으로 당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예술적 감각, 세련된 매너, 안정적인 기량, 공간 조형미 등에서 고무적인 평가[1]를 받았다. 또한 대본·음악·안무가 모두 창작인 한국무용극이란 점[2]에서 한국적 무용극의 초석을 놓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1 심정민, 「국립무용단사」, 『국립극장 70년사 역사편』(서울: 국립중앙극장, 2020년), 282쪽.
2 「국립무용단 공연 전통 바탕의 현대적 무용 『별의 전설』」, 『중앙일보』, 1973. 11. 19.

글. 김연희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1973년 국립극장준공기념공연 <별의 전설> 프로그램북



1973년 국립극장준공기념공연 <별의 전설> 포스터

※ 공연 정보

공연명 국립무용단 국립극장준공기념공연 한국무용극 <별의 전설>
공연일자 1973. 11. 21.~11. 25.
공연장소 국립극장
스태프 원작 서항석 | 대본 안제승 | 안무 송범 | 음악 박범훈 | 장치디자인 장종선 등
출연진 견우-송범, 은방초, 정재만 | 직녀-김문숙, 최혜숙, 박순자 | 옥황상제-최현 | 무녀-최희선 | 꽃의 정-한순옥 | 노파-이숙향 | 용왕-박정목 | 학-정재만 | 사슴-국수호 등

※ 공연예술박물관 아카이브 플랫폼 이용 안내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박물관 소장자료 및 작품 검색을 위한 아카이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별별스테이지 홈페이지(http://archive.ntok.go.kr)에 접속하면 박물관 소장자료를 어디서든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다.

문의 | 공연예술자료실(방문이용) 02-2280-5834

이달의 소식

**전통 기반의 동시대적 공연예술 창작을 이어가는 한편, 다양성과 공존을 전제로 모두를 위한 공연장으로 나아가는 국립극장.
이달 국립극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한다.**

①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에든버러 초청 공연





국립창극단이 세계적인 예술축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8월 4~27일)에서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Trojan Women>을 공연한다.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일환으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한국 특집주간이 개최된 것이다. 해당 축제에는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8월 9~11일)을 포함해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 5편이 초청됐다.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전쟁의 비극 속 소외된 평범한 여인에게 주목해,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한 이들의 강인함과 용기를 그린 작품이다. 2016년 국립극장과 싱가포르예술축제가 공동 제작했으며, 동명 작품을 기반으로 배삼식 작가가 극본을 쓰고, 싱가포르 출신 연출가 옹켕센이 연출했다. 여기에 판소리 거장 안숙선이 소리를 엮고, 영화 <기생충>의 음악감독 정재일이 음악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초연 후, 2017년 싱가포르예술축제를 시작으로 2018년 런던·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해외 유수의 무대에 초청돼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22년에는 뉴욕 브루클린음악원BAM에서 주최하는 넥스트 웨이브 축제Next Wave Festival에 공식 초청돼 성황리에 공연했는데, 이는 BAM 오페라하우스의 40년 역사상 첫 창극 무대였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코리아시즌'에서 3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가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으로 다시 태어나 관객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

②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8월 국립극장에서 <달빛 상영회> 열어



국립극장은 2021년부터 공연영상화사업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을 통해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 공연의 고품질 영상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해 왔다. 국립극장의 다양한 공간을 관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극장 공간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획된 <달빛 상영회>는 국립극장 야외에서 진행한다. 지난 시즌 많은 사랑을 받은 레퍼토리 세 편의 영상을 오프-시즌인 8월에 만나볼 수 있다.

8월 9일(수) 창극 <귀토>를 시작으로 16일(수) <무용극 호동>, 23일(수) 창극 <나무, 물고기, 달> 순으로 상영하며, 해오름극장 1층 야외 쉼터인 '해맞이 쉼터'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다. 최대 관람 인원은 100명까지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관람료는 9,000원으로 7월 28일(금)부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공연의 감동을 오롯이 전하기 위한 무선 헤드셋과 한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음료 쿠폰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달빛 상영회> 외에도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은 더욱 다양한 오프라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8월 19일부터 개최하는 '작은영화관협회 기획전'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천년의노래, 리버스>, 국립무용단 <더블빌-신선> <더블빌-몽유도원무> , 4편의 공연실황이 상영작으로 선정돼 양양 작은영화관에서 선보인다.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9개 작은영화관을 통해 상영하는 국립극장 자체 기획 프로그램 '전국팔도 극장 서는 날'도 빼놓을 수 없다. 창극 <변강쇠 점찍고 옹녀> <귀토> <춘향> <나무, 물고기, 달>, 그리고 어린이 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2>까지 총 5편의 국립극장 공연 실황 영상을 상영한다. 지역 영화관명, 영화관별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각 영화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23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를 8월 17일(목) 19시 30분 달오름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는 국립극장이 2022년부터 전통공연예술 분야 차세대 창작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NTOK Connect' 사업의 일환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한국 전통음악 특유의 호흡이 담긴 장단과 선율 등 국악 고유의 어법과 색채를 담아내는 지휘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김지수·채길룡·최동호 세 명의 지휘자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수업과 지휘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멘토로 참여하는 원영석(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정치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등 악단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지휘자들과 연습 지휘를 진행하며, 연주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휘자로서 지녀야 할 역량과 리더십을 훈련했다.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는 약 6개월간 거쳐온 프로젝트의 중간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다. 소편성부터 대편성까지 지휘자가 악단과 소통하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1부는 실내악, 2부는 관현악으로 구성했다.

1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위촉 초연한 실내악 작품을 만나보는 자리다. '작은 기도'(채길룡 지휘, 박경훈 작곡)를 시작으로 '실내악을 위한 배꽃타령'(김지수 지휘, 최덕렬 작곡), '닐리리야 주제에 의한 염원'(최동호 지휘, 박한규 작곡)이 연주된다. 2부는 세 지휘자가 선택한 관현악 작품을 한 곡씩 만나보는 순서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관현악 소묘 '내 나라, 금수강산'(채길룡 지휘, 강준일 작곡), 국악관현악 '공무도하가'(최동호 지휘, 김성국 작곡), 국악관현악 '청산靑山'(김지수 지휘, 김대성 작곡) 세 곡을 차례로 연주할 예정이다.

시연회는 전석 1만 원으로 7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또는 전화(02-2280-4114)로 예매할 수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시연회 당일 관객과 단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멘토 지휘자와 연주 작품의 작곡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 및 평가 결과는 프로젝트 선정 지휘자가 2023 하반기 <정오의 음악회> 무대에 오르기 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National Theater of Korea
국립극장 8월 공연 일정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공연 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 기타

8
National Theater of Korea
8월의 국립극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2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5:00	3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4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5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4:00, 19:00
6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4:00, 19:00	7	8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9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5:00 <달빛 상영회> 19:30	10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11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12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4:00, 19:00
13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4:00, 19:00	14	15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한여름의 아코디언 인생 여행> 14:00	16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5:00 <달빛 상영회> 19:30	17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2023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프로젝트> 시연회 19:30	18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9:30	19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14:00, 19:00
20	21	22	23 <달빛 상영회> 19:30	24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19:30	25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19:30	26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16:00
27 국립현대무용단 <여자야 여자야> 16:00	28	29	30	3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 www.ntok.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Giovanni Grano & Quartet Mitja

국립극장 NTOK회원을 위한 특별 음악회

지오빈니 그라노 & 쿼르텟 미티아 내한공연



Giovanni Grano
Guitar



Giorgiana Strazzullo
1ST Violin



Lorenza Maio
2ND Violin



Veronica Fabbri
Cello



Carmine Caniani
Viola

2023.8.29 화 19:30

국립극장 해오름

스페셜게스트
Giovanni Grano 기타리스트 | 이선영 바이올리니스트

전석 무료 / 문의 | 국립극장 02-2280-4114

주최 | 국립극장 주관 | 국립극장, 공연기획 이즈

© 이 책에 실린 글·그림·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국립극장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전재·변형·송신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각 원고는 필자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국립극장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월간 국립극장' 종이책은 교보문고 POD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본 책자와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ISSN 2982-54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인 박인건
기획 및 제작 구슬·김보나
사진 전강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문의 02-2280-5816 magazine@ntok.go.kr
편집 및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종덕
안무
윤성철 박재순
정관영 정소연
정현숙 김은이
박기환 김희정
박지은 황태인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티켓 R 4만원 S 3만원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3-2024
2023.9.1–3 국립극장 | 달오름

원가
분리강